

## 시니어 사역 패러다임 전환 시급

10월 15일(화), 오전 9시 30분  
 GBC 1층 공개홀서 진행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는 미주 성서회 운동본부와 미주복음방송과 함께 10월 15일(화)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시니어와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제1회 시니어 사역 교육 훈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빠른 전이는 재앙과 동시에 축복이라는 야누스적 얼굴을 지닌 채 우리 일상 생활 공간과 세계 질서를 급속히 재편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가운데 한인 이민교회는 이미 초고령화 공동체로 변모하고 있다. ‘고령화사회’ 속 교회의 과제와 역할은 무엇일까? 교회 시니어들을 어떻게 사역 현장에 바르게 세움으로써 교회의 동력화를 기할 것인가? 시니어 사역 교육 훈련은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과 시니어들이 함께 고민하며 풀어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다. 급변하는 시대에는 창의적 사고와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미래 지향적 시니어 사역을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시니어 회중의 전인적 건강과 성숙, 은퇴와 임종을 위한 예비 교육 훈련 콘텐츠와 사역 프로그램 개발에 힘을 쏟는 일은 현 시대 교회의 주요 현안이자 과제다.

한인 교회의 많은 시니어들은 지난 이민 교회 및 이민 사회 성장과 발전의 주역들로서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몸에 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다. 더군다나 그들은 백세시대를 맞아 건강할 뿐 아니라 경제적

으로 안정적이다. 아울러 자녀부양의 의무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롭다. 시니어들은 교회와 선교 현장은 물론 교회 밖 커뮤니티에서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의 부르심과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존재들이다.

‘나이 들이란 하나님의 부르스로부터의 멀어짐이나 떠남이 아닌 그 안에서의 지속적 ‘머뭇’과 ‘자람’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시대의 교회가 시니어들을 교회의 동력화하고 다양한 사역의 밸런스를 잘 맞춘다면 한인교회는 시니어와 함께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

이번 ‘제1회 시니어 사역 교육 훈련 세미나’는 시니어의 돌봄과 시니어의 재사역자화를 위해 개최된다. 이를 위해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는 탁월한 시니어 사역자들을 강사로 모셨다. 송길원 목사(하이패밀리 대표, 시니어 파트너스 이사장), 김기철 교수(감신대 교수, 한국영성노년학연구소 소장), 샬롬 김 박사(Vision Mentoring International 대표), 김재홍 목사(Well Aging Mission 대표)의 특강과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시니어 사역에 대한 방향성과 시니어 목회의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게 된다.

세미나는 10월 15일(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미주복음방송 1층 공개홀에서 개최된다. 장소의 공간적 제한으로 인해 9월 15일부터 60명을 선착순으로 예약 받는다.

대상은 목회자, 교회 리더, 평신도 시니어들이다. 참가비는 없고 강의안과 점심이 제공된다. 시니어로 구성된 어부들의 찬양팀(리더: 박병권 목사)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찬양 시간도 점심 이후에 열린다.

문의 및 예약 접수: 황성만 목사 | 626-826-4181, lifelonghwang@ptsa.edu

## 추석맞아 독거노인에 사랑의 쌀 나눠



남가주교회협의회 후원, 방주교회 주최로 한인독거노인 사랑의 쌀 나눔잔치가 12일 오전 11시에 중앙루터교회에서 열렸다. (관련기사 3면) © 기독일보

## 美 국무부, 특별우려국 제재율 1.8% 불과

미국 의회가 설립한 연방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미 국무부가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을 지정한 지 25년 동안 단 세 번만 해당 위반과 관련된 제재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제재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IRFA)에 따라 행정부에 특별우려국에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제재는 1999년 이후 164건의 CPC 지정 중 단 1.8%에 불과했으며, 모두 에리트레아를 대상으로 적용되었다.

USCIRF는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에서 CPC 지정의 사례 중 67.7%는 이미 다른 이유로 적용된 제재가 사용되었으며, 24.4%는 종교자유 침해 국가들이 ‘국가 이익’을 이유로 대통령 면제를 받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현직 국무부 관계자 및 이해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를 통해 “제재가 적용되지 않아 국무부의 연례 CPC 지정의 실효성이 감소했다”며 “구체적인 조치의 제한적 사용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114건의 CPC 지정 중 111건은 지정학적, 경제적 요인을 이유로 이미 제재가 내려진 ‘이중직무수행(double-hatting)’에 해당되었다. 미국 대통령에 의한 CPC 면제는 47건으로, 이중 40건은 ‘국가 이익’을 이유로, 7건은 ‘법의 추가적 목적’을 이유로 외교적 수단을 통해 면제가 이루어졌다.

IRFA의 목적 증진을 이유로 사용된 면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5건, 우즈베키스탄에 2건 적용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공공 장소에서 비이슬람 신앙 표현이 금지된 국가로, 2004년 이후 매년 CPC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페르시아만의 주요 전략적 동맹이자 에너지 파트너라는 이유로 미국 행정

부는 사우디에 IRFA 제재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국무부는 CPC 지정과 관련된 양자 협의회에서 사우디 정부가 시행할 정책 변경 목록을 도출하고, 이를 조건으로 무기한 제재 면제를 발표했다.

USCIRF는 “주요 요청 사항으로는 학교 교과서의 편협한 내용 개정, 비이슬람 신자의 개인 예배 보호, 그리고 악명 높은 국가 종교 경찰의 권한 제한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당시 이 문제에 대한 성과는 미미했고, 그 결과 2014년 7월 사우디아라비아는 CPC로 재지정되었다. 그럼에도 국무부는 “미국의 중요한 국가이익”을 이유로 제재 면제를 다시 부여했다. 이후 USCIRF 국가 보고서는 매년 이 면제에 반대해왔지만, 국무부는 계속해서 면제를 갱신해왔다.

김유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로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라스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연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4년 대박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ITC: 30% 이상  
 ◎ 솔라 셀비의 광가성비 총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전국지도자 대회 및 이승만대통령 기념 선교관개관식

3rd 'President Syngman Rhee Day' & AKUF-USA National Leadership Conference

## 대통령 이승만의 날

Korea 'President Syngman Rhee Day'

사랑하는 미주 한인 동포 여러분!  
 오는 10월 1일은 '대통령 이승만의 날'입니다.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은 2021년 국군의 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날을 대통령 이승만의 날로 선포하였으며, LA 카운티 City of Walnut과 오렌지카운티 City of Stanton 시의회는 10월 1일을 대통령 이승만의 날로 제정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올해 제3회 '대통령 이승만의 날'을 맞이하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건국정신과 올바른 자유대한민국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뜻 있는 행사에 미주 한인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1st President Syngman Rhee**

기념행사	특별강사: 한성주장군 예비역공군소장/월간독립정신 발행인 박형재대표 '쌀300포 참가자에게 1포씩 선물'
9월 28일 토요일 Sep. 28(Sat)	Independence of Korea Photos Exhibition/한국독립과 전쟁 사진 전시회   오후 4시~7시 / 장소: 놀웁선교관 (12801 Norwalk Blvd Norwalk, CA 90650)
9월 29일 주 일 Sep. 29(Sun)	President Syngman Memorial Service/이승만대통령의 날 기념예배 오후 3시 / 장소: LA 구국재단 / 전시회 소스물 예정 (6532 Foster Bridge Blvd Bell Gardens CA 9020)
9월 30일 월요일 Sep. 30(Mon)	Forum: The Role of Korean American for US-Korea / 핫스프링스 온천과 포럼: 미국과 한국을 위한 미주한인의 역할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Korean Church)
10월 1일 화요일 Oct. 1(Tue)	Memorial & Award Ceremony & 'President Syngman Rhee Day' /대통령 이승만의 날 기념식 및 시상식 (Los Angeles Sanuree Korean Church 11:00 AM)
10월 2일 수요일 Oct. 2(Wed)	2st Syngman Rhee Memorial Golf Fellowship Tournament / 대통령이승만의 날 기념 친선골프회동 (Westridge Golf Course)

LA 구국재단 성령애국집회: 매주 수요일 오전11시에 집회가 있습니다. (원장 이우호목사)

문의: (714)955-9523 | (754)366-9923 Email: uskorea@att.net INVITES 행사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꼭 문의 부탁드립니다.

  
 임용근 의원  
5 Terms Senator

  
 조용규 의원  
15-16th Congressman

  
 Suzanne Scholte  
Mrs.

  
 Anne Lee  
놀웁선교관

  
 한성주 장군  
Major General

  
 Eric Ching  
Former Mayor

  
 David Shawver  
Mayor

  
 최학량 목사  
미주군목회회장

  
 윤성원 목사  
전 미주총신대학장

  
 김현국 목사  
PCA-CCK 전총회장

  
 박창재 대표  
달라스 대표

  
 석시몬 목사  
미주CBS 대표

  
 한기형 목사  
AKUF-USA 부회장

  
 조미나 목사  
AKUF-USA 부회장

  
 이성우 목사  
해럴드 대표

  
 이우호 목사  
AKUF-USA 대표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총회장: 이우호 목사 | 명예 총회장: 임용근 의원, 조용규 의원**

주최: America Korean United Foundation-USA 후원: (재)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 이승만기념사업회(LA) | [월간] 독립정신 |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 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 | 코랄리치한인장로교회 | 모레노밸리한인교회 | 벨가든한인교회 | LA 구국재단 | 이승만기념 놀웁선교관

# 그레이스미션대학교, ChatGTP사역 전략세미나 개최

남가주 대표 한인신학교 그레 이스미션대학교(이하 GMU)와 AI를 통해 미래목회를 준비하는 AI MISSION의 공동주최로 열린 ChatGTP사역 전략세미나가 9월 12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까지 은혜한인교회 웨딩채플에서 열렸다.

이번 ChatGTP사역전략 세미나는 첨단 인공지능 기술 AI를 활용하여 교회 사역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을 목표로 신앙 공동체와 목회, 선교, 교육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심도 깊은 강의를 진행 되었다.

1부 발제를 맡은 AI컨설턴트이자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는 "Chat-GPT를 설교를 준비하는데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면 보다 강단의 수준이 올라갈 것이며 복음을 전하는



남가주 대표 한인신학교 그레 이스미션대학교(이하 GMU)와 AI를 통해 미래목회를 준비하는 AI MISSION의 공동주최로 열린 ChatGTP사역 전략세미나가 9월 12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은혜한인교회 웨딩채플에서 열렸다. @ GMU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며 ChatGPT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부에서는 Ai mission 이충희 목사가 발제자로 나서 실질적인 ChatGPT를 활용법과 목회 카테고리

리별로 점목해 응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소개했으며 3부에서는 미션어 웨이크 대표이자 미래목회전략연

구소 공동대표인 김광근 목사가 발제자로 나서 ChatGPT 시연을 통하여 이 시대 AI가 할 수 있는 목회 영역들을 소개했다

이 날 세미나에는 현장 50여 명, 온라인 ZOOM 20여명의 교회 관계자들이 참여해 챗GPT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술이 목회와 선교, 교육 분야에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 기회와 도전 과제를 명확히 제시했으며 ChatGPT와 같은 최신 기술을 통해 신앙 공동체는 보다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교육을 강화하며, 선교 활동을 국제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GMU는 미래목회를 위한 다양한 세미나를 준비하며 계획하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문의: (714)525-0088, admissions@

## 제5회 선교사 자녀 장학기금 마련 골프 토너먼트

후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선교사 자녀들을 후원하기 위한 골프 토너먼트가 오는 10월 14일(월) 오전 10시 로스 카요티스 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를 주최하는 O.C. 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신용)의 신용 회장은 "선교사님들은 사역 위주로 후원과 재정을 사용하다보니 자녀나 생활을 위해서 재정을 배정하지 못한다. 그런데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목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많지 않다. 자녀, 생활, 건강, 미래를 위해 투자나 저축해 놓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돕길 원한다"고 말했다.

"저희가 주력한 일은 교회가 연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일들이었다. 체육대회, 집회, 합창제였다. 교회가 커지다 보니 체육대회를 모아서 하기 쉽지 않아서 골프대회로 중점을 바꿨다. 골프대회로 바꾸면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차세대에 도움을 주는

것이였다. 저희가 차세대 인재 양성, 선교사를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 보니 선교사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

참가비는 \$180이며, 그린피 및 점심, 저녁만찬이 포함된다. 경품으로는 홀인원 (현금 \$ 20,000), 한국 왕복 항공권, 골프 용품, 생활용품 등을 준비했다.

이 장학 기금은 한 가정당 500달러이며, 선정 기준 1순위는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의 자녀이다.

주디 한 기자  
일시 : 2024년 10월 14일 월요일 10:00am (점수) / 12:00pm (샷건)  
장소 : LOS COYOTES COUNTRY CLUB  
참가비 : \$180 (그린피 및 점심, 저녁 만찬 포함)  
경품 : 홀인원(cash\$20,000), 한국왕복항공권, 골프용품및 생활용품 등  
문의 : 562-399-2022(신용 회장), 213-700-7877(민길 이사장), www.ockca.org /info@ockca.org,



무궁화여성합창단 @ 월드쉐어 USA

## 무궁화 여성 합창단, 극민국 어린이 후원

### 9월 14일 세리토스선교교회서 극민국 선교 장학금 전달

9월 14일 오후 5시30분부터 세리토스선교교회(방상용목사)에서 제23회 무궁화여성합창단(단장 강성희)의 정기 연주회가 있었다. 창립 31주년을 맞은 무궁화여성합창단(이하 무궁화 합창단)은 수준 높은 음악으로 남가주의 초가을 밤을 수놓았다. 이날 무궁화합창단은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음악을 통해 400여 명의 청중을 열광시켰다. 찬양, 향수를 자극하는 가곡과 일반곡을 조화롭게 배치한 구성이 돋보이는 품격 있는 음악회였다.

강성희 단장은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이번 음악회가 위로의 음악회로 준비했다고 밝혔는데, 이번 음악회는 교민들을 위로하는

아름다운 음악회였다. 강순영 목사(전 JAMA 대표)는 "준비를 많이 한 음악회인 것 같다. 진행과 음악 모든 것이 매끄럽고 수준 높다"라고 평했다.

무궁화 합창단은 코로나를 거치며 많은 단원들과 지휘자가 교체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며 발표도 가질 수 없었다. 이들은 오랜만에 연주회를 준비하면서 음악회 수익금의 일부를 극민국 선교현장 아동을 대상으로 성경 필사 캠페인을 진행하는 월드쉐어 USA 선교 프로젝트를 후원했다.

단장과 지휘자 및 모든 단원들이 활동해 얻은 광고 후원금, 행사 후원금, 특별 후원금 등으로 모은 성경필사 장학금 2,000 달러와 지경 교수가 마련한 특별후원금을 2부 첫 순서로 월드쉐어 USA에 전달했다.

월드쉐어 USA 대표 강태광 목사는 "19일(목)에 우크라이나와 아이티에 송금했다. 선교지에서는 아동 100여 명이 성경을 필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아동들과 도미니카, 수리남, 아이티 극빈 아동들과 그들 가정과 지역이 복음화 되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23회 무궁화 합창단 정기연주회를 위해 오렌지 미션 과이어(이하OMC/단장 김계환, 지휘 강민석)이 특별출연했다.

이번 연주회를 마친 무궁화 합창단은 다음 연주회를 위한 연습에 돌입했다. 무궁화 합창단은 매 주 월, 금 오전에 세리토스 선교 교회에서 정기 연습을 가지며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강성희 단장/(213) 465-9890)에게 연락하면 된다.

월드쉐어 USA 강태광 기자

## 2025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장학생 모집

밀알선교단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정진하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에도 다음과 같이 밀알 장애인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 수여대상**
  - 밀알장학생: 00명 (대학 또는 대학원을 full-time으로 재학중인 장애인)
  - 꿈나무장학생: 00명 (사랑의교실 참가자 또는 배움의 기회와 학업의 격려가 필요한 장애인)
  - 근로복지생: 0명 (미주 각 지역 밀알선교단에서 봉사하는 장애인)

- 제출서류**
  - 완성되지 않은 신청서와 부족한 서류는 심사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됩니다.
  - 기존 장학생들도 반드시 동일하게 서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금 신청서는 남가주밀알선교단 홈페이지 (www.milalsca.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102명의 장애인 장학생들에게 \$136,200의 밀알장학복지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장학복지기금이 출범한 2001년부터 2024년까지 지급된 누적 총 금액은 \$3,012,400입니다.

- 1. 밀알장학생**
  - 신청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소정양식)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본인 신앙 간증문 (최소 500단어)
  - 수입증명서 (예: 최근 세금환급(Tax Return),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Pay stub), 고용주의 편지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경제적 도움을 받는 곳으로부터 편지 등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가지)
  - 추천서 1매 (출석교회 담당사역자 또는 소속학교 담당 지도교수)

- 2. 꿈나무장학생**
  - 신청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소정양식)
  - 재학 (소속기관) 증명서
  -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앙 간증문 (최소 500 단어)
  - 추천서 1매 (출석교회 담당사역자(사랑의교실 주임교사) 또는 소속기관 담당 교사)

- 3. 근로복지생**
  - 신청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소정양식)
  - 본인 신앙 간증문 (최소 500단어)
  - 수입증명서 (예: 최근 세금환급(Tax Return),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Pay stub), 고용주의 편지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경제적 도움을 받는 곳으로부터 편지 등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가지)
  - 추천서 1매 (출석교회 담당사역자 또는 소속학교 담당 지도교수)

- 장학금액**
  - 밀알장학생 & 근로복지생: 1인당 \$3,600.00 (매달 \$300 지급)
  - 꿈나무장학생: 1인당 \$1,000.00 (일시 지급)

- 신청마감**  
2024년 12월 6일(금)까지 우체국 직인이 찍힌 것에 한함 (Email 접수 가능)

- 발표**  
2024년 12월 31일(화) 개별통보함

- 수여식**  
2025년 1월 20일(월)



# 동부장로교회, 장로 취임 및 안수집사, 권사 임직예배 드려

장로 1명, 안수집사 2명  
권사 13명 임직 받아

동부장로교회(김정오 목사)가 장로 취임 및 안수집사, 권사 임직예배를 15일 오후 4시에 드렸다.

설교에서 김기웅 목사(노회 총무)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신성이 있고, 인성도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성을 입으신 것”이라며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변호해주고 계시다. 직분자들로서 계속해서 부족함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기 위해서다. 사도는 주께서 피값을 흘려서 사신 교회를 여러분에게 맡긴다고 한다. 힘들수록 이 특권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양무리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성도나 직분자나 다 양들이지만, 예수의 피값으로 사셨다. 직분자들이 성도들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특권이다”면서 “우리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줄 믿는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나의 언행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가르쳐야 한다. 교회를 가르치려면 내가 배워야 하고 제자훈련을 받아야 하고 제자가 되어야 한다”며 “섬기라고 주는 이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배풀고 권면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기를 믿는다”고 했다.

권면사에서 김재현 목사(LA 고은장로교회)는 “갈라디아서 5: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동부장로교회(김정오 목사)가 장로 취임 및 안수집사, 권사 임직예배를 15일 오후 4시에 드렸다.

##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할레나 무할레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 뿐이나라”고 했다. 구원을 받은 성도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직분

자는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하고 직분을 통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교회에 문제가 생길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모

든 것을 협력해서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다.

답사에서 임직자 대표 이규장 장로는 “여러분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항상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섬기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정오 목사의 집례로 진행된 임직예배에서는 1명의 장로, 2명의 안수집사, 13명의 권사가 새로 임직됐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동부장로교회는 1973년 9월 30일 이용규 목사와 교인들이 첫 주일예배를 드림으로 세워졌다. 1996년 현재의 성전을 구입해 이전했으며, 2014년부터 김정오 목사가 담임으로 섬기고 있다. 지난해 5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토마스 맹 기자

## 토렌스 주님세운교회 후임목사 부임

내년 3월 16일 원로목사 추대담임 목사 위임예배 예정

토렌스 주님세운교회(KPCA 서노회소속)에서 현 담임 박성규 목사의 후임으로 신용환 목사를 2대 담임 후임목사로 청빙하여 지난 9월 1일 주일부터 주일 설교를 시작했다.

토렌스 주님세운교회 박성규



토렌스 주님세운교회 후임 목사로 부임한 신용환 목사. © 기독일보

담임목사는 신용환 후임목사와 6개월간 동사 목회를 하게 된다.

후임 신용환 목사는 나성한미교회 6대 담임목사로 사역했고, 선한청지기교회 협동목사로 사역하면서 토렌스 주님세운교회에서 청빙을 받아 부임과 동시에 사역을 시작했다.

토렌스 주님세운교회를 20년 동안 목회하며 남가주 교계에 영향력있는 교회로 성장시킨 박성규 목사는 터키 난민선교운동, 동성애 반대, 평등법 반대, 아동보호법 주민발의안 서명운동과 미국청교도신앙회복 다민족연합기도회에 적극적으로 교인들과 함께 동참했다.

20년 목회 은퇴를 앞두고 신용환 목사를 후임으로 성도들과 함께 청빙해, 새로운 도약과 부흥의 계기로 삼고 준비하고 있다.

후임목사는 해외한인장로교회(KPCA) 교단 가입 절차 후에 내년 2025년 3월 16일 주일에 박성규 목사 원로목사 추대 및 신용환 목사 담임목사 위임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조셉 리 기자

## 남가주사랑의교회 제4대 담임목사 청빙

9월 30일 까지 미국 PCA 교단 소속

남가주사랑의교회가 제4대 담임목사를 9월 30일까지 청빙한다.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정규 신학대학원 (Master of Divinity) 졸업
  - 미국장로교 PCA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나 PCA 교단에 가입할 의지
  - 미국 내 한인 이민교회에서 7년 이상, 목사 안수 후 5년 이상 목회 경험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일치하는 개혁주의 신학적 기반
  - 남가주사랑의 교회 사명과 비전을 계승하는데 헌신
  - 제자훈련에 대한 열정
  - 한국어와 영어 소통 능력
  -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유
- 구비서류는 ● 이력서 ● 자기소개서 (신앙고백, 성장 배경, 가족관계, 목회 경험, 목회철학과 비전 등 상세히 설명) ● 목사 안수 증명서 ● 최종학교의 졸업 증명서 ● 추



남가주사랑의교회. © 남가주 사랑의교회

천서 (목회자와 평신도 사역자 포함 3명, 이메일/전화 연락처 명시) ● 설교 동영상 온라인 링크 (최근 1년 이내) ● 가족사진 (최근 1년 이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문의 및 제출: E-MAIL: pulpit@sarang.com.

남가주 사랑의교회는 오정현 목사와 12명의 헌신된 이들과 함께 1988년 1월 세리토스에서 첫 예배

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개척 첫 해부터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다량방 모임을 열어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일에 앞장섰다. 이후 2대 김승욱 목사(필라델피아 한인연합장로교회 담임)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킹덤 드림’의 기치 아래 교회를 섬겼으며, 2012년 노창수 목사 3대 담임으로 부임해 교회를 이끌어 왔다.

주디 한 기자

→1면 사진 <추석맞아 독거노인에 사랑의 쌀 나눠>에 이어서

남가주교회협의회(회장 최영봉 목사) 후원, 방주교회(김영규 목사) 주최로 한인독거노인 사랑의 쌀 나눔잔치가 12일 오전 11시에

중앙루터교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 200여 명이 참석해 쌀 한 포대와 이조 캐터링에서 후원한 점심 도시락을 받았다.

남가주교회 협회 회장 한기형 목사는 “고후 8장 9절 ‘예수님께서 부

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다. 주님은 우리를 부자되게 하기 위해서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영생의 복을 주

셨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은 부유하신 분”이라며 “예수에게 나아가면 우리 문제가 해결된다. 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른다. 항상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

란다”고 전했다. 이날 11월 선거에서 코리아타운이 속한 10지구 시의원 출마한 그레이스 유 후보도 참석해 한인타운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며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토마스 맹 기자

# 가을 스페셜

Lease Special

NEW 2024 HYUNDAI Ioniq 5 SE RWD

\$179 / Mon + Tax

12,000 mile/year  
For 24 Months  
\$4,665 due at lease signing  
MSRP \$47,805

\$13,000 Lease Cash Available

NEW 2024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NEW 2024 HYUNDAI Tucson Hybrid SEL Convenience AWD

NEW 2024 HYUNDAI Ioniq 6 SE RWD

NEW 2024 HYUNDAI Santa Fe Limited

0%

APR Financing

60개월까지 할부 가능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Ioniq 5 ONLY)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up to 48% off MSRP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 다음 세대를 후원합니다

**제18기 사랑장학생 모집**  
**신청 기간 10/1~10/30**  
**100여 명에 2천달러씩 지급**

제18기 사랑장학회 (KDSF)가 장학생을 선발한다.

신청기간은 10월 1일(화)~31일(목)이며, 사랑장학회 홈페이지(www.kdsfsarang.com)를 통해서 지원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미국내 정규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진학예정자로서 좋은 인성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진고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며, 타주 학생도 지원 가능하다. 기독교 신자 뿐만 아니라 비신자들까지도 대상자에 포함되며, 해외 선교지의 선교자가 추천하는 현지인 신학생 또는 신학교에 준하는 재학생,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들도 지원할 수 있다.

합격자 발표는 11월말 사랑장학회 홈페이지

이제 공고 및 개별 통보한다.

장학금 수여식은 12월 22일(주일) 남가주 사랑의교회에서 거행된다.

킹덤드림장학재단(Kingdom Dreamer)은 장학금과 기도를 통해 학생들을 지원함으로써 하나님 왕국을 위한 새로운 세대의 일꾼을 격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07년 창립 연도에 42명의 학생에게 18만 달러의 장학금을 제공했고 그 이후 16년 동안 이 사역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 총 1,533명의 학생에게 297만 달러를 제공했다. 지난해에는 장학생 115명에게 204,000달러를 전달했다.

킹덤드림장학재단은 사랑 커뮤니티 교회와 주변 지역의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을 돕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차세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의: kdsf.sarang@gmail.com

주디 한 기자



사우스베이목사회(회장 김우준 목사)가 11일(수) 오전 8시 가나교회(담임 안병권 목사)에서 9월 정기 예배를 드렸다. ©사우스베이목사회

## “불가능한 일 해결의 열쇠는....”

**사우스베이 목사회 9월 정기 모임**

사우스베이목사회(회장 김우준 목사)가 11일(수) 오전 8시 가나교회(담임 안병권 목사)에서 9월 정기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나눴다.

이날 모임은 김관중 목사(뉴-크리스천 교회)가 대표로 기도하고 안병권 목사가 ‘부르심에 3가지 징조’(사무엘상 10장 1절-9절)를 제목으로 설교했다.

안목사는 “나는 18세 때 소명감을 갖게 해 주셔서 신학교를 다녔고 마침내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때 나는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고 주님의 인도하는 대로 사역을 해왔다. 그 중 \*내가 너

를 불렀다. \*육신의 양식 \*능력을 주신에 항상 감사 등등으로 사역을 열심히 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합심 기도 순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를 위하여 \*전세계에 파견되어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지역 사회 복음화를 위하여 \*오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기도하고 안병권 목사의 축도를 끝으로 사우스베이 목사회 9월 정기 예배를 마쳤다. 이후 가나교회에서 아침 식사를 제공했다.

사우스베이 목사회 기사 제공



2023년도 사랑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 kdsfsarang.com/

### 단신

▶ 고 이정근 목사 천국환송예배 9월 21일 미주성결교회 총회장 등을 지내면서 미주한인교계 발전에 기여한 고 이정근 목사의 천국환송예배가 9월 21일(토) 오전 11시 30분 토렌스 산샘교회(담임 윤석형 목사)에서 미주성결교회 교단장으로 거행된다.

장례일정: 9/21(토) 오전 11:30  
토렌스 산샘교회: 1814 Abalone Ave, Torrance, CA 90501

문의: 김시은 목사(성결교단 총무 213-407-4569) 최영하 목사(남가주교협 총무 213-999-1923)

▶ 2024 다민족연합기도대회 9월 22일 미국의 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2024 다민족연합기도대회가 오는 9월 22일 오후 4시 은혜한인교회에서 개최된다.

문의: 준비위원장인 강순영 목사(310-

995-3936), 심상은 목사(714-722-4805), 또는 사무 총장 강태광 목사(323-578-7933)

▶ 장애인장학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2024년 밀알의밤

2024 밀알의밤은 10월4일(금)부터 6일(주일)까지 사흘동안 '위로 (이사야서 40:1)'란 주제로, '하림'을 메인게스트로 초청해 진행된다.

일시 및 장소  
10월4일(금) 오후 7:30 | ANC은누리교회  
10월5일(토) 오후 6:00 | 감사한인교회  
10월6일(주일) 오후 6:00 | 엘바인 온누리교회

티켓 구입: 중앙일보(https://m.hotdeal.koreadaily.com)에서 '2024 밀알의밤' 검색

문의: 남가주밀알선교단 562-229-0001

## ‘비전 멘토링’은 주님의 제자 훈련 원리!

〈생명의 서〉의 저자 살롬 김 목사(비전 멘토링 인터내셔널 대표) 비전찾기 세미나가 오는 22일(주일)과 27일(금) 각각 LA와 OC에서 개최된다.

LA에 소재한 비전 라이프 교회(VisionLife.Church, 담임 살롬 김 목사, 미주 중앙일보 건물, 690 Wilshire Pl #3F, Los Angeles, CA 90005)에서 진행되는 22일(주일) 세미나는 오후 1:00 예배, 오후 2:15 점심과 친교, 오후 2:40 비전찾기 멘토링으로 진행된다.

OC에서는 9월 27일(금) 오후 5시 에벤에셀 Revival Mission Center(6481 Orangethorpe Ave #21 Buena Park)에서 저녁과 친교, 비전 찾기 멘토링이 진행된

다. 살롬 김 박사의 ‘비전 멘토링’은 (제자 입니까?)로 유명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의 강의 통역을 맡으며, 매주 목요일마다 그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면서 영감을 얻고, 또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며 얻게 된 새로운 제자훈련의 패러다임이다.

그는 한남대학교 영어영문학 학사, 알라스카 주립대학교, 풀러에서 목회상담학 석사를 거쳐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웨퍼드대학교에서 학장과 총장으로 섬겼다. 현재는 비전 멘토링 인터내셔널 대표로 비전의 발견과 실현을 위한 멘토링 사역을 하고 있다. 김민선 기자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2024년 대박**

Lic#854389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무료 설치 서비스**  
전가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 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합니다.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 전기세 50~90% 절감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고객님들께 드리는 서비스 약속

- 최고의 서비스**  
잘 훈련된 프로페셔널 팀이 최고의 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해 드립니다.
- 최고의 워런티**  
25 YEARS 고객님의 시스템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업계 최장 25년 워런티를 보장합니다.
- 최고의 제안가격**  
타사대비 25-40% 저렴한 가격으로 제안 드립니다.

**www.btssolardesign.com** **BTSSolar**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시시오

1. 최신 전기빌을 준비해 주세요.
2. 전기빌 1~4 페이지를 사진 찍으신 후 문자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3. 확인 후 고객님께 별도 안내 드립니다.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센터메디컬그룹 창립 10주년기념

공식 후원사



센터메디컬그룹이 다시 회원들에게 씁니다!

# 미스트롯3



(만 65세 이상 회원 한정)

## 무료 관람권받고 즐겁게 즐기세요!

센터메디컬그룹 회원이라면 OK!  
센터메디컬그룹 회원의 짝꿍까지 OK!

무료티켓 신청전화

### (888) 847 - 3098

## 10월 13일 <일> 6 PM



SHRINE AUDITORIUM

665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시니어 전문 케어 메디컬 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 “요한 웨슬레를 깨운 것은, 모라비안 가정의 믿음”

### 김문훈 목사, 뉴욕센트럴교회서 새생명 전도축제 인도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가 부산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새생명 전도 축제를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했다. 고신교단 중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끌고 있는 김문훈 목사는 2008년 뉴욕할렐루야대회 강사, 2009년 뉴저지호산나대회 강사로 미국 동부를 방문한 바 있다.

3일간 이어진 전도 축제에서 김목사는 특히 믿음에 대해서 강조했다. 성도들의 삶이나 신앙이 팬데믹 이후 많이 달라진 현재, 신앙의 근본을 다시 붙잡고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어떤 상황에 있어도 복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고 복음의 전달자로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을 권면했다.

김목사는 첫날 ‘아.이.야의 축복’(창세기 26:12-13)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아.이.야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의미하는 것으로 김목사는 자신의 가정의 믿음이 대를 거듭하면서 더욱 단단해지고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정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존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대를 이어 확산되어 나가는 것으로, 이런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구조 속에서의 삶과 신앙이 쌓여서 손자에게 또 아들에게 반드시 내려간다”면서 “아브라함은 조상 중에 믿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고, 본문의 말씀처럼 요셉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 아브라함의 믿음부터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목사는 또 “아.이.야의 축복이라는 것은 약점이 강점되고, 쓴물이 단물 되고, 안 좋은 것이 좋게 바뀌어 가는 것이고 신앙의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삭은 약해 빠진 사람이었지만 약할 때에 그 은혜가 더욱 나타났다.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날 김목사는 성도들이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삶의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복음의 전달자’(마 28:16-20)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김목사는 성경 속에서 또, 기독교 역사가운데 복음을 평생 전하며 살았던 이들의 삶과 일화들을 소개했다.

김목사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를 변화시킨 것은 대서양을 건널 때 돛이 부러진 배에서 풍랑 속에

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모라비안 가정의 신앙이었다”면서 “당시 배에 있던 영국 신자들이 공포에 질려 있었음에도 오히려 찬양을 부르고 있던 이 모라비안 공동체의 신앙은 요한 웨슬레를 흔들어 깨웠고, 그는 평생의 전도자로서 삶을 끝까지 살았다”고 말했다.

또 김목사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25세 때 한국으로 선교를 위해 건너와 세웠던 세브란스병원이 현재 8천명의 직원이 일하는 큰 병원이 된 것을 언급하면서 “정말 젊은 나이였지만 선교를 위한 그의 삶이 한국에 이토록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목사는 신앙이 약하고 어리다고 낙망하지 말 것을 권면하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두고 성경은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언급한다. 이 사람은 숨겨진 제자였고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다는 사람이었지만 변화되었다”면서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사람들이 수근대고 흉을 봤지만 예수님은 자신은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다고 했고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또 일곱귀신이 붙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의 부활의 전달자가 된 부분도 언급하며 “귀신에 시달리던 사람이, 영광스러운 예수님 부활의 처음 전달자가 된 것이다. 최약에서 최상으로 쓰임 받은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목사는 “우리가 형식화, 화학화 된 신앙을 하기 쉽다. 한국은 IMF, 최근에는 코로나를 지날 때 열등감이 더해지고 마음이 강박해졌다. 뉴욕 한인 또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살아왔을 것”이라면서 “특히 코로나가 지나면서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의 감격이 무너지고, 신앙이 형식적이 되고 있는 위기 가운데 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또, 역사 속에 있는 좋은 교훈들을 본받아 가는 곳마다 복음의 전달자로서 거침없이 쓰임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김목사는 마지막날 주일예배 설교를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소개했다. ‘팔방미인’(누가복음 1:13-17)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김목사는 “사도바울은 자신의 일생에 대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다”면서 “장가를 간 적도, 집도 절도 없는 삶이었고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말년에 고생하면서 했던 고백은 자기가 어디에 있어도 잘 견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씀은 장애인 딸



김문훈 목사

을 두고도 항상 감사하고 살았던 군장성의 일화로 이어졌다. 이 군장성은 육사 출신도 아닌데 승승장구하면서 항상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에게 비결을 물으니 평소 자신의 삶을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고 살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장애를 가진 딸에 대해서도 항상 그 자체로 감사하고 살았기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어 김목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심장이식을 양보한 것으로 유명한 하형록 박사의 사례도 들었다. 김목사는 심장이식을 2번까지만 받을 수 있는 미국에서 자신의 마지막 심장 이식을 앞두고 다른 환자에게 양보했던 하형록 목사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마음을 예쁘게 보셨겠는가”라면서 “그가 미국의 젊은이들이 취업하기 원하는 기업 10위 안에 드는 큰 회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하목사는 기적적으로 또 다른 심장기증을 받게 된다.

김목사는 “하목사의 아버지가 목사님으로 나환자촌에서 사역을 열심히 했다. 아버지가 훌륭한 사역을 했기에 아들이 복을 받은 것”이라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장로님들을 보는데 특히 복을 많이 받은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꼭 나온다. 북한에서부터 눈물의 기도가 쌓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목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이 보기에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남이 사는 것에 대해서도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면서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삶을 살았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김목사는 마지막날

설교 이후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자신에 대해 “소심한 목회자”라고 소개하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와 선교에 있어서는 항상 돌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포도원교회가 유니온 비전 미션을 통해 70개 교회를 우간다에 세울 수 있었던 것과 관련, “하나님의 은혜였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문훈 목사와의 일문일답.

**-뉴욕에 오랜만에 방문하셨다. 팬데믹 이후 이민교회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한국교회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는가.**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 비록 거리는 멀지만 비슷한 현상들을 겪고 있는 것 같다. 한국도 다음 세대들이 줄어들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민교회 또한 2세 사역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지도자를 길러내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민교회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으로 안다. 이럴 때일수록 돌파구를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포도원교회의 경우 다음 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의 경우 어느정도 다음 세대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 우려되는 부분은 지역 교회들이다. 지난 7월에 포도원교회 드림센터에서 농어촌교회 및 미자립교회 초청 청소년 하기 수련회를 열었는데 49개 교회에서 86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9월2일-3일에는 ‘한국교회 교회교육 엑스포’가 같은 장소에 열려서 다음 세대 교육에 관심 갖은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았다. 총 48개 부스가 설치돼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많은 정보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우간다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 현재 포도원교회가 집중하고 있는 해외 선교사역은 무엇인가.

유니온비전미션을 통해 아프리카 우간다에 3000개 교회, 300개 학교를 세우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현지에 신실한 선교사님이 있어서 포도원교회도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됐다. 지금까지 포도원교회를 통해 70개의 우간다 교회가 세워졌다. 현재도 이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 중에 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현지에 많은 교회들은 세우고 있지만 수 천명이 모일 수 있는 강당 같은 시설은 없어서 꼭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는 당회가 바로 결단하고 지원금을 보낸 것이다. 꽤 큰 규모의 지원금이었지만 모두 한 마음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포도원교회가 비수도권 교회임에도 고신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포도원교회는 미디어의 도움을 많이 받은 교회다. 당시 방송에서 장경동 목사님과 제가 강사로 출연했고 그 방송을 보고 저희 교회로 많이 찾아주셨다. 그래서 교회 성장 비결을 물으신다면 저는 미디어의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 저 개인으로 본다면 저는 매우 소심한 스타일이다. 현재 포도원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사역들이나 많은 도전들은 제 개인으로 보자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포도원교회의 사역들이 한국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국구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지역에서는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남들이 하지 않는 역동적인 사역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 원동력이 있다면.**

포도원교회는 지금까지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사역에 많은 도전을 해왔다. 제 개인적인 성향은 소심하지만 목회 철학만큼은 항상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그래서 체질에 맞지 않더라도 목표를 항상 높게 세우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비전에 당회나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나 이민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렵다는 생각에만 갇혀서는 안되고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돌파구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본다.

김대원 기자

## 이제는 안심하자!

#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원장

# 올림픽 치과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 We Bridge 교회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12:50  
 주일예배 2부 12:50  
 수요일예배 9:30  
 수요일예배 8:30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15  
 새벽기도 오전 5:30

**이미애 담임목사**

Angel's Church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주일예배 오전 10:00  
 화일예배 오전 10:00  
 금일예배 오전 10:00

**한주봉 담임목사**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주일예배 오후 12:00  
 교육부예배 오후 12: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전 6:30

**이현욱 담임목사**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주일예배 오전 11:11

1940 N. Bullis Rd. Compton, CA 90221(Worship Location)

**곽찬훈 담임목사**

Los Angeles One Church

2065 E 120th St. LA, CA 90059(Mailing Address)  
 T. (213)273-6452 www.laone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새벽 6:00(월-토)

**송재봉 담임목사**

LA사랑의 동산교회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박지상 담임목사**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주일예배 오전 11:00

**JOE HONG 담임목사**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 1,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



주일예배 오전 10:30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ISAIAH LEE 담임목사**

New Start Community Church



주일예배 오전 10:00  
 성경공부 및 기도회 금요일 오후 7:30  
 https://www.facebook.com/chkh0810

**장경호 담임목사**

Only One Church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



주일예배 오후 2:00

**제임스킴 담임목사**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00

**김상현 담임목사**

In Christ Christian Church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



주일예배/EM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목) 오후 7:00  
 생일(금) 오후 7: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6:30

**김정호 담임목사**

가스펠교회

1520 La Mirada Blvd, La Mirada, CA 90638  
 T. (657)253-8561 www.thegospelchurch.net



주일예배 오전 11:00  
 기도회(주일) 오후 3:00

**양홍규 담임목사**

굿프렌즈교회

5721 Lincoln Ave #K, Cypress, CA 90630  
 T. (714)852-8485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6:30(화-금), 6:30(토)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남상권 담임목사**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00  
 EM/교목부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오상규 담임목사**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김창곤 담임목사**

남가주은혜선교회

300 Vallejo Dr. Glendale, CA 91206  
 T. (310)713-3006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저녁 7: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차권희 담임목사**

늘워장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 (213)598-6878



주일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전 9:30

**강은덕 담임목사**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ejrrkd@hanmail.net



주일예배 오후 12:30  
 어르신예배 오후 3: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김영일 담임목사**

더섬기는교회

605 S Palm St #H, La Habra, CA 90631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주일예배 낮 12:00  
 수요일예배 오전 10:00

**정용암 담임목사**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주일예배 오후 2:00  
 어린이주일학교 오후 2:30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토요일아침기도회 오전 7:30

**신용석 담임목사**

로고스라이프교회

4872 Bishop St. Cypress, CA 90630  
 T. (714)673-2141



주일예배 오전 11:00

**정달성 담임목사**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아침기도회 오전 6:30(화-토)  
 중보기도회 오전 10:00(주일)  
 소그룹 성경공부 오전 10:00-12:00(수)

**김명구 담임목사**

말씀위의교회

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 92506  
 T. (909)247-7355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서민수 담임목사**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주일예배 오후 1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일아침기도회 오전 8:00

**장현석 담임목사**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예배 오전 6: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EM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윤혁 담임목사**

브림장로교회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신현우 담임목사**

생명과사랑의교회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주일예배 오전 11:30

**곽태규 담임목사**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주일예배 오전 11:10

**에스라김 담임목사**

생명의바람교회

12420 Mar Vista St, Whittier, CA 90602  
 T. (714)683-9894 windlifec@gmail.com



주일예배 오후 1:00  
 평일 저녁 6:30

**임상훈 담임목사**

섬김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8129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이석기 담임목사**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30

**김요한 담임목사**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주일예배 오전 1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30  
 아침기도회(온라인) 오전 7:00(화-토)  
 기도모임 오전 11:00(화)

**정찬군 담임목사**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주일예배 오전 11시 [세대가 함께 하는]  
 주일예배 2부 오후 1시 30분  
 금요일성경공부 금요일 저녁 8시  
 청년부 수요일 저녁 8시  
 수요일(온라인) 새벽기도 수요일 새벽 5시 30분

**김지연 담임목사**

원웨이침례교회

6015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주일예배 오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8: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최주철 담임목사**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



주일예배 오전 11:45  
 어린이 & Youth 오전 11:45

**표희곤 담임목사**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류연주 담임목사**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주일예배 오전 8:30 /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김성규 담임목사**

주백성교회

3400 W. 6th St. Suite 202, Los Angeles, CA 90020  
 T. (818)633-1241



주일예배 오전 10:30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양수용 담임목사**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주일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나눔 코이 모임 오후 6:00(월)

**권혁래 담임목사**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조인 담임목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pc.com



주일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2:00  
 금요일모임 오후 7:00  
 목요일중보기도회 오전 10:00

**류광환 담임목사**

커넥션교회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주일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및 성경공부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김용근 담임목사**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주일예배 오후 1:00

**정하이 담임목사**

크로스교회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오정시)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주일예배 3부 저녁 예배(오정시)  
 주중예배 목요일 오후 8:00(화) / 금요일 오후 8:00(목)  
 파워예배 2번째 주 금요일 오후 8:00(목) / 4번째 주 목요일 오후 8:00(목)

**오홍성 담임목사**

하늘기쁨의교회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양국민 담임목사**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odsgc@gmail.com



# 반종교에서 무종교로, 우리에게 일말의 책임도 없을까?

###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 가을 공개 강좌 정재현 교수 세미나

지난 9월 6일(금) 오전 11시에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 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가 명사를 초청해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우리 믿음 되돌아보기”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이끈 정재현 교수는 <미국의 종교 분포 변화>를 제시하며 이 변화가 지닌 함의를 설명하고, 고대부터 중세, 근세, 근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 논하며, 신앙에 대한 성찰을 유도했다.

“프로테스탄트 비율을 보면, 2007년에 53%였는데 2012년에 48%가 됐다. 특별히 2012년이 중요하다. 2012년이 왜 중요한가? 미국이 개신교 국가라고 하는 주장을 해 왔는데 50% 미만으로 떨어진 첫 해, 개신교 입장에서 봤을 때 뼈 아픈 해이다. 불과 5년 사이에 5%가 줄었다. 반면, 가톨릭은 -1%, 다른 종교는 변동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종교(unaffiliated)의 비율의 변화이다. 개신교 인구가 5% 줄었다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무종교가 4.3%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6년에 무종교가 19.4%였는데 2016년에 25%로 늘어났다. 더 심각한 것은 연령별 비율. 2016년 젊은 세대(18세-29세)의 비율이 10%(1986년)에서 2016년에 39%로 급증했다.”

**비종교인의 호감 종교: 불교 25%, 천주교 18%, 개신교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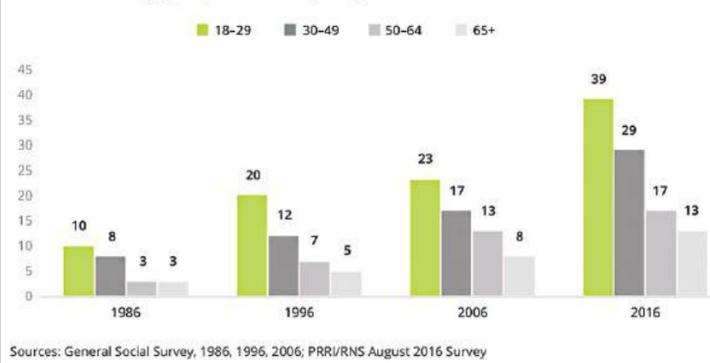
“비종교인에게 가장 호감을 느끼는 종교를 묻은 결과 25%가 불교를 꼽았고 그 다음은 천주교(19%), 개신교(10%) 순이었으며, 절반에 가까운 46%는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고 답했다.”

“무종교인, 종교에 어떠한 관심도 없다고 답한 사람이 가장 큰 비율 46%를 차지했다. 열렬한 유대교 신자였던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었으나,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사도로 픽업될 수 없다. 그의 이전 토양들, 그 탄탄한 지혜를 사용해서 기라성 같은 편지를 썼다. 그만큼 밀도가 있고 토양이 있는 사람이었다.”

“왜 믿지 않는가 봤더니, 가장 큰 이유가 ‘관심이 없어서’, 그 다음은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다. 이 둘은 천지 차이다. 종교의 의미 자체를 들이낼 수 없는 척박한 토양이다. 그것은 그들의 인생이니 그냥 내버려두어야 하는가? 일말의 책임도 없을까? 기독교 신자로서 그들이 그런 인생관의 방향을 잡도록 우리가 일조한 것은 없을까? 이것을 되돌아볼 계기를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고대는 복음의 세계화를 위한 정신 문화적 토양이 다져지던 시대. 4대 성인 중 3대 성인이 기원전 5세기 전에 등장했다. 교부들

FIGURE 2. More Young Adults are Unaffiliated than in the Past  
Percent of each age group who are religiously unaffiliated, 1986-2016



미국 공공종교 연구소의 2016년 8월 조사에 따르면, 이전 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무종교라고 답했다. (General Social Survey, 1986, 1996, 2006; PRRI/RNS August 2016 Survey) © 미국 공공종교 연구소(PRRI: Public Religion Research Institute, RNS: Religion News Service)

은 이 성인들이 ‘복음을 위한 토양을 준비했다’라고 해석했다. 중세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 세계를 향해서 뻗어 나갈 수 있게 되었으나, 순교자의 종교로부터 황제의 종교로, 정치와 결탁하게 되었다는 이면을 지닌다. 근세에 들어서면서 종교는 영역이 줄어들고, 종교세력으로부터 세속이 빠져나온, 탈종교 시대가 되었다.”

**근대: 더이상 신은 증명의 대상 될 수 없다**

“현대는 종교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됐다. 근대와 구별되는 현대를 시작해 준 정신문화의 선구자들이 있었다. 포이에르바흐, 맑스, 니체, 프로이트 등이 등장했다. 포이에르바흐는 종교를 ‘투사’, 맑스는 ‘아편’이다 니체는 ‘우상’이다, 프로이트는 ‘환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네 사람의 무신론과 중세의 무신론과 결이 전혀 다르다. 인간이 하나님을 증명의 대상으로 설정한 것이 중세의 사고 방식이라면, 근대와 함께 신은 더이상 증명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 이것이 근대이다. 세상은 그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는데 교회는 점점 울타리를 적게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종교에 대한 비판으로 열심히 반종교를 주장했다. 반종교는 그나마 아직 애정이 있는 것, 관심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 부터 또다른 버전이 등장하고 극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십자가와 성경을 치웠다. 이제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다. 비판은 아직도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이제 무관심- 무종교로 시대가 바뀌었다.”

“무종교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 반종교의 외침을 교회가 제대로 주목하지 못한 때문이다.”

왜 믿는가? 그런데 묻기를 꺼려했다. ‘왜’라는 물음을 묻게 되면, 믿음에 대해서 시비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의심이고 회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른 성찰의 과정 없이 열심히 앞으로, 위를 향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기에게는 강박이 되고 타인에게는 독단이 된다.”

현대의 키워드는 욕망

그는 ‘욕망’이 키워드가 된 현대, 욕망을 향해 질주하고 있으나 교회는 여전히 고전적 금욕주의만 강조하니, 교회가 세상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근대까지도 인간을 분석할 때 ‘의지적인 인간’ 이라고 봤다. 현대의 새로운 버전은 욕망이다. 고대 중세 말할 것도 없고 근대조차 금욕주의가 기본 강령이었고 욕망은 억눌러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욕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교회가 신학적 성찰을 통해서, 이를 넘어서고 초월하는 경지, 업그레이드 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여전히 금욕만 강조하니 세상이 볼 때, 교회의 메시지는 현실하고 동떨어진 것으로 드릴 수밖에 없다.”

**‘신’(神, God)과 ‘신’(信 faith)의 혼동**

“우상은 우리의 신앙 속에 신앙의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며 ‘신’(神, God)과 ‘신’(信 faith)을 혼동한다. 칼뱅은 ‘인간은 끝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말했고 프로이트는 인간은 우상 없이 살 수 없다고 했다.”

이어서, 신자들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하나님”일 수 있다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으로, “그대로의 하나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을 깨야 한다. 성서는 내가 맞닥뜨린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가르쳐준다. 전자에서는 ‘내’가 주어라면, 후자에서는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

그는 또한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성서 우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성경이 그대로를 보여 준다고 하면, 하나님을 제쳐두고 성경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다. 성경책을 금으로 칠하고, 지퍼로 딱 묶었다가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는지, 내가 지퍼를 싹 열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퍼를 딱 닫으면 하나님 다시 조용하시



비종교인의 호감 종교. 호감가는 종교가 없다(46%), 불교(25%), 천주교(18%), 개신교(10%), 기타(1%) 순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



정재현 교수는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과 ‘그대로의 하나님’을 대조하며, 신앙의 강박과 독단을 경계할 것을 강조했다. © 스크린 샷

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가둔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름이 없었다. 즉,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규정할 수 없는 분이다.”

그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모리아산 사건을 언급했다.

“모리아산 사건은 ‘그리어나하실지라도’의 믿음에 관한 것이다. 믿고 싶은 하나님을 부수는 것이다. 하나님은 ‘왜 내가 믿고 싶은 대로’를 부수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그토록 싫어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를 속박하고, 타인을 억압하는 것을 염려하시는 것이다. 성서를 통해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대로의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한다.”

한 참석자는, 이 강의에서 논의된 ‘내가 믿고 싶은 대로’의 하나님’과 ‘그대로의 하나님’에 대해 32년간 묵회를 하며 많은 고민을 했으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삭 번째 사건을 가지고 토론한 일이 있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이삭이 받을 그 상처까지 생각했을까?’ 이런 질문을 했다. ‘이건 차일드 어뮤즈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져 놓고 토론을 했던 일이 있는데, 이삭은 어떻게 치유가 됐을까?”라고 질문했다.

정재현 교수는 에모리 대학 신과대학원 철학적 신학 전공(MTS), 종교철학-조직신학 전공(Ph.D.)을 전공했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과 성공회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주디 한 기자

## “혹사 당하는 눈!”

너무 많은 눈 영양제 과연 어떤 것이 좋을까?

**01**

**눈 건강 루테인지아잔틴**

**\$17.90 ▶ \$14.90**

50대 이상 : 노화로 인한 눈 건강문제(황반변성)를 지키기 위해서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함유된 영양제를 추천합니다. 루테인은 자외선을 차단해 망막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02**

**눈 건강 루테인 밀크씨슬**

**\$17.90 ▶ \$14.90**

40~50대: 눈 보호와 함께 과한 업무로 누적된 '긴' 건강도 신경 써야 하는 분들에게는 눈에 좋은 루테인과 간에 좋은 밀크씨슬이 함유된 '루테인 밀크씨슬'을 추천합니다.

**03**

**눈 건강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

**\$18.90 ▶ \$15.90**

20~30대 직장인: 직장업무에서 컴퓨터, 휴대폰 등의 사용량이 많고 눈이 혹사되어 피곤한데도 눈이 잘 수 없는 상황에 놓은 분께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A, 비타민E가 함유된 영양제가 좋습니다. 특히, 안구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를 추천합니다.

**J1 MANT**  
Healthy Life

**판매처**  
PRO-Z USA, Inc  
T.(213)278-3250

# 이슬람 통치 45년에 지친 이란인들, 기독교 개종 증가



©Sina Drakhshani/ Unsplash.com

이란에서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사람들의 개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CBN뉴스는 “이란인들은 아야톨라 대통령과 이슬람 신권 정치의 험담 약속에 이끌리는 국가에 지쳐가고 있다. 혁명의 내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란 인구의 80%가 민주 정부를 선호하며, 많은 이들이 이슬람을 떠나고 있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미국 순교자의소리(미국 VOM) 토드 넬튼(Todd Nettleton)은 이란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마약 중독률을 가지고 있고, 부패가 만연하며, 국민의 절반 이상이 빈곤 이하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란 국민들은 ‘이슬람이 지난 45년 동안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이것이라면, 우리는 그에 대해 관심이 없다. 우리는 다른 선택지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넬튼에 따르면, 이슬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신앙은 예수이며, 최소 100만 명의 무슬림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의 75,000개 모스크 중 50,000개가 문을 닫은 상태다. 그는 “이것은 정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 면에서 그들은 권력을 공고히 하고, 모든 종류의 반대를 분쇄하려 한다. 우리는 올해 성경공부 모임과 가정교회가 습격당한 사건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들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진 찍히고 심문 받는다. 그 모임의 지도자는 붙잡히고 체포된다. 또 구금되고 교도소에 수감된다”고 했다. 넬튼은 이슬람을 떠나는 것에

대해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정부보다 더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들은 ‘너한테 맞는 걸 찾았다면, 예수이든 무신론이든 뭐든, 그게 너한테 맞다면... 이슬람은 너에게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너에게 맞는 걸 찾아서 다행이야’라는 태도를 갖고 있다”고 했다. 더타임즈미니스트리(The Tide Ministry)의 돈 쉐크(Don Shenk) 전무이사는 “난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실제로 이슬람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무슬림들은 꿈과 환상을 경험하며, 많은 사람이 삶의 목적을 찾고 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고 있다”고 했다.

그는 “청취자들로부터 ‘이제 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다. (이전에는) 신이 나를 벌하고 싶어한다고 항상 생각했다’는 반응을 얻었다. 그리고 이란뿐 아니라 무슬림 세계 전역에서 각성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쉐크는 “타이드미니스트리의 라디오 방송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며 “탈레반은 이 나라 안의 비밀스러운 기독교인에게 정보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것은 단순히 가족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버림받는 것 이상이다. 사실 그것은 죽음의 위협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날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김유진 기자

# 거리 설교 중 머리에 총 맞은 전도자, 기적적 회복 후 복귀 앞뒤



한스 슈미트가 ABC15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총격 사건과 이후 회복에 대해 간증했다. ©YouTube/ABC15

지난해 11월 미국 애리조나의 한 거리에서 설교 중 머리에 총격을 받은 전도자가 사역 복귀를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살아 있다”고 고백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피닉스빅토리제일교회(Victory Chapel First Phoenix) 전도 담당 사역자인 한스 슈미트(Hans Schmidt·26)는 최근 한 지역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총을 맞은 이후 회복 과정에 대해 전했다.

군의관 출신으로 두 자녀를 둔 가장인 그는 “지난해 11월 15일 저녁, 혼잡한 교차로인 51번가와 피오리아 애비뉴 모퉁이에서 설교하던 중 무릎 꿇었던 기억이 난다. 처음에는 총에 맞은 사실을 몰랐다. 뭇가 이상함을 느꼈다”며 “평소보다 일찍 설교를 마무리하고 교회로 향하는데, 피가 흘렀고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회상했다. 법 집행 기관과 의료인들 모두 슈미트의 생존 가능성은 매우 낮

다고 말했다. 혼수상태에 빠진 그는 발작과 구토를 일으키고 뇌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뇌에서 체액을 빼내는 등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 만인 지난 1월 월 슈미트는 다시 가족과 교회의 품으로 돌아왔다. 의사들은 그가 총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으나, 그는 점차 회복해서 현재는 사역 복귀를 앞두고 있다. 그는 “아직 매일 언어 치료를 받고 걷는 법을 배우고 있지만, 회복 과정은 정말 기적이다. 저는 살 수 없었다. 현실적으로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여전히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게 총격을 가한 사람에게 원한을 품는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며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했다. 아울러 “내가 여전히 살아 있으니 하루하루가 축복”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평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회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며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00 (내세대에 오전 9:15)  
3부예배(바자세대에)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회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위로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ga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일밤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생애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분당 CMC 중교동부 오전 11:30 교목관 4층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분당 CMC소망부 오전 11:30 교목관 427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C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목관 18층 수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co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애가 삼아 살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영아) 오전 10: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 3부예배(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중보기도회 오후 2:00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교회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교동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교동부 오전 10:5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교동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교동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dailya@gmail.com

주일 오전 10:00 허튼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턴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진건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교동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교동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토)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cs.com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윤성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방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최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dta.com

**정우성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일찬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00am 토요일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문란인) 5:30am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rc.org

**방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이우호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국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집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토),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지영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림학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재자성사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아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반인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박신웅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스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명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락한 교회 삼림봉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박훈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6:0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김종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월/수/금) (토/주일) 새벽 6:00  
 (월/수/금) (토/주일) 새벽 6:00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주혜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나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안창훈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일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9:40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행 12:2-3)  
 5540 Schaefer Ave. China,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 美 개신교인과 가톨릭교인, 해리스보다 트럼프 선호



©유튜브 영상 캡처

미국 퓨리서치센터의 새로운 조사에 따르면, 2024년 대선에서 개신교인과 가톨릭교인은 대부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을,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진 유권자의 대부분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퓨리서치센터는 8월 26일(이하 현지시간)부터 9월 2일까지 미국 성인 9,7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선거일까지 2개월을 남겨 두고 대선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는 한편, 종교집단 간 주요 후보자에 대한 선호도도 분석했다. 그 결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신교인 전체와 가톨릭교인 사이에서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을 앞질렀다. 개신교인의 61%와 가톨릭교인의 52%가 트럼프를, 개신교인의 37%와 가톨릭교인

의 47%가 해리스를 지지했다. 하위 그룹별로 보면, 트럼프는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인(82%), 백인 가톨릭교인(61%), 백인 주류 개신교인(58%)의 지지를, 해리스는 히스패닉 가톨릭교인(65%)과 흑인 개신교인(86%)의 지지를 받았다. 그 외의 종교를 가진 유권자들은 트럼프보다 해리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리스는 유대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65 대 34%로, 종교에 소속되지 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68 대 28%로 트럼프를 앞서고 있다. 무신론자의 85%, 불가지론자의 78%, 무종교인 유권자의 59%가 해리스를 선호했다.

교회 출석을 고려할 때,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백인 가톨릭과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 유권자는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유권자보다 트럼프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았다.

강혜진 기자

## 동남아 선교단체 지도자 “현지 맞춤형 제자훈련 필요”



2023년 3월 4일부터 5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의 푸토 스포츠 시설에서 열린 전도집회 ‘스프링러브페스티벌’에서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프랭클린 그레함 페이스북

메콩에반젤리컬미션(Mekong Evangelical Mission) 창립자 겸 이사인 찬사몬 사이야삭(Chansamone Saiyasak)이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 현지 상황에 적합한 제자 훈련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이야삭은 아시아복음주의연맹(Asia Mission Association, AEA)과 SEANET 불교선교포럼(SEANET Buddhist Missionological Forum)의 지도자로 활동하며, 아시아선교학회(Asia Society of Missiology) 회장과 미국 올리벳대학교(Olivet University)의 종교학 및 선교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10일 크리스천포스트에 실린 칼럼에서 “다른 대륙과 비교할 때, 아시아의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8.6%에 불과하지만, 아프리카는 48.5%, 라틴 아메리카는 92.7%를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식민지 시대의 로마 가톨릭 선교로 이러한 수치가 크게 작용하여 많은 나라의 문화적 기반에 기독교가 뿌리내리게 했다”며 “이 지역의 강력한 기독교 정체성은 다양한 교파가 번성할 수 있는 종교적 자유에 의해 더욱 뒷받침되고 있다”고 했다.

사이야삭은 “아프리카에서 기독교의 초기 확산은 식민지 시대의 선교적 노력에 의해 촉진되었으나, 그 이후의 급속한 확장은 주로 현지 지도자들의 활발한 토

착민 전도 덕분”이라며 “이러한 성장만으로도 지역 문화에 성공적으로 융합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아시아의 기독교 성장은 더 많은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 선교 활동과 사회 개발 이니셔티브가 영향을 미쳤지만, 뿌리 깊은 종교 및 문화적 전통, 정부의 제한, 사회 및 정치적 압력, 경제적 어려움 등이 기독교 확산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기독교가 문화적 정체성에 깊이 연관되어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현지 전통과 융합된 반면, 아시아에서는 기독교가 종종 현지의 문화적 표현과 단절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아시아복음주의연맹(AEA)의 국가 연합들은 아시아에 적합한 제자 훈련 방법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아시아에서 기독교 선교를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며 네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사이야삭은 “현지 기독교인들이 아시아 환경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기, 신앙을 효과적으로 나누며 현지 문화에 맞게 조정하도록 돕기, 지역 전통을 이해하고 새로운 신자를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지도자 양성하기, 교회가 지역사회에 더 적합하고 문화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을 제안했다.

김유진 기자

# 美 대형교회 목사이자 작가 알리스터 베그, 1년 뒤 은퇴 선언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파크사이드교회 담임목사인 알리스터 베그. ©파크사이드교회

미국의 기독교 작가이자 목회자인 알리스터 베그(Alister Begg)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파크사이드교회(Parkside Church) 담임목사직에서 2025년 9월 14일 은퇴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그가 사역을 시작한 지 50년 만이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파크사이드교회는 웹사이트에 “알리스터 베그는 트루스포라이프(Truth For Life)에서 목회와 사역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그는 2024년 8월 장로들에게 이(은퇴) 결정을 알렸고, 장로들은 내년에 담임목사 후보를 지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2세의 스코틀랜드 출신 목사인 그는 라디오 및 온라인 교육 사역인 ‘트루스포라이프’의 진행자이며, 1983년부터 파크사이드 교회의 담임으로 섬겨왔다.

베그는 8일 주일 설교에서 자신과 아내가 은퇴를 1년 전에 발표한 이유는 “교회가 이 변화에 적응하고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며, 개인적인 이유로 인한 것도 아니다. 단지 후임자에게 안전하게 배턴을 넘기기 위해서”라며 “시간과 관심, 건강이 허락하는

한 다양한 장소와 사역에 참여할 것이며, 교회에서의 책임과 특권이 사라진 후에는 트루스포라이프에서 더 헌신하고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그는 수년 동안 많은 목회자들이 사역을 떠나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문 목사도 있었지만, 몇몇은 너무 일찍 떠났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은퇴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며 “떠나고 싶지 않을 때 물러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지치거나 좌절하지 않았고, 실망이나 불만, 환멸도 느끼지 않았다며 “오히려 내 후임자에게 주어질 기회가 부럽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해 더 나은 일을 하고 지금까지 누린 특권들을 다시 누리고 싶지만, 42년을 더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작별의 순간은 오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말했다. 베그는 교인들에게 “후임자를 찾는 과정에서 장로들과 함께 명확성과 단합을 위해 기도해 달라”면서 “이 시기에 교회에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깨닫는 것은 큰 특권”이라고 했다.

김유진 기자

# “美 전역에 세워진 공자교실, 감독 없이 운영 중”

4중국이 미국 전역의 143개 학군에 소위 ‘공자교실’(Confucius Classrooms)을 설립하는 데 최소 1,700만 달러(약 226억 2,000만 원)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중국의 세계관을 가르쳐 왔다.

공자교실은 공자학원의 공립학교 버전으로, 중국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 대학 캠퍼스에서 운영되는 문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미 의회가 공자학원(Confucius Institute)의 자금 지원을 주로 단속하는 동안, 공자교실 운영에 대한 감독은 거의 또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CBN뉴스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주 라이언 월터스(Ryan Walters) 공교육감은 지난해 ‘교육 및 인력에 관한 하원 위원회’(House Committee on Education and the Workforce)에서 “이것은 국가 안보 문제다. 우리 교실에서 일어나는 세뇌를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것은 가장 사악한 것 중 하나”라고 강력 비판했다. 헤리티지재단의 중국 전문가 마이크 곤잘레스(Mike Gonzalez)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중국은 좋은 시스템이고 정상적인 국가’라고 믿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했다.

공자교실은 문화 교류 프로그램으로, 학군에 제공되며 중국어를 배우는 기회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청년들에게 중국 공산당의 정치와 역사에 대한 관점을 가르친다.

‘반발: 중국의 침략은 어떻게 역효과를 냈는가’의 저자이자 더페더럴리스트(The Federalist) 기고자인 헬렌 롤리(Helen Raleigh)는 “그들은 1989년 천안문 광장에서 일어난 일과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고, 대만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며, 대만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공식 버전을 사용해 ‘대만은 중국의 한 지역이다.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또 학교들에 막대한 자금을 제

공하고 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 있는 토마스제퍼슨과학기술고등학교(Thomas Jefferson High School for Science and Technology)는 공자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1백만 달러(약 13억 5,2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을 수호하는 부모들’(Parents Defending Education)의 니콜 네일리(Nicole Neily) 회장은 “공자교실이 20개의 군사기지 근처에서 운영되며, 미군 병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네일리 회장은 하원 청문회에서 “군사 기지와 관련해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무서운 부분이다. 이 (공자교실) 직원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무엇에 접근할 수 있고, 무엇이 오가고, 무엇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에서 어떤 데이터가 흘러나오는가?”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3월은 토마스제퍼슨과학기술고등학교와 연계된 비영리 단체가 10년 동안 중국 정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100만 달러(약 13억 3,000만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추가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적어도 2009년부터 보조금, 자매학교 파트너십 및 기타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의 K-12 학교와 관계를 육성했다.

교육을 수호하는 부모들은 34개 주와 워싱턴DC에 있는 143개 학교의 제휴를 추적했으며, 적어도 7개 학교는 여전히 활동 중이다. K-12 학교와 중국 정부 간의 재정적 교류 규모는 수천 달러(수백만 원)에서 토마스제퍼슨과학기술고등학교의 경우 백만 달러(수십억 원) 이상에 이른다.

놀랍게도 중국 정부의 연계는 20개 미국 군사기지 근처의 학군을 표적으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 CBN 뉴스는 “그것이 우려되는 이유는, 공자학당이 중국 정부에 학교와 학생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주일에 오전 11: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안 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침례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가디언) 오후 8:30 송재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지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고태형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김지성 담임목사  
-1부 07:30AM -1부 09:00AM -광일(월-금) 06:00AM  
-2부 09:15AM -2부 11:00AM -토요일 06:00AM  
-3부 11:00AM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6th - 12th)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들뜸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오후 12:30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EM 오후 12: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사랑부 오전 11: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리 내 길에 빛이 나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종교동부(아기돌) 오전 11:00 유경재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부(아기돌)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초등부 오전 11:00 Youth 금요일(금) 오후 7:30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종교동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종교동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8628 www.churcheveryday.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안정섭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종교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예수동행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ilovejcc.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락덕근 담임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오명찬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일(영양)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월요일예배 오전 8:00 OC예배 오후 7:30 최혁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1부 9:00AM 주일 2부 11:00AM 토 오전 8:00(200M)  
주일 3부 11:15AM 주일 4부 11:30AM  
금요일(영양) 오전 7:45 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19014 Riata St., Northridge, CA 91321, (818)363-5887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오후 12:30 이건창 담임목사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화요일성경부 오후 7:30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Newhall,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ol.org

주일예배 오전 10:40 지동근 담임목사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예배 오전 6:30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박성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한국어, 스페인어)  
교목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임인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3225 S Rainbow Blvd #200, Las Vegas, NV 89146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강일진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인어)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이정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침례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lkchurch@gmail.com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kcc/index.php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송삼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EM예배 주일 오후 1:00 정공필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새벽 5:3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6827 W Tropicana Ave #130, Las Vegas, NV 89103  
T. (702) 742-3324 / thinkhappychurch.org

주일낮예배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조응철 담임목사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일교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이병철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저녁 6: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제일침례교회**

2625 Westwind Rd, Las Vegas, NV 89146  
T. (702) 331-5026

주일 예배 오전 11:00 (영어 동시통역) 박은호 담임목사  
화요일중보기도회 오전 10:00  
수요 예배 오후 7:3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라스베가스 은혜와 사랑의 교회**

2580 Montessori St. #107, Las Vegas, NV 89117  
T. (702) 539-6348

주일 1부 예배 11:30 AM 임명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joounchurch.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3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저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수능  
·아시아미용기술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베르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고기, 김치만두, 찜닭, 오박편,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 기억력 개선
- 피로 회복
- 혈액순환 개선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작용

5 **비타민 D3 5,000 IU**  
120 캡슐을 함유 \$8.80  
D3 5000 IU 신사안 비타민이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캡슐을 함유 \$11.99  
당신의 건강과 부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같은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르는데 기여하여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 페인트, 타일 및 플로어링, 보수작업 무료로 도와 드립니다

9월 선착순 5명 지원자 및 봉사자 모집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MICAH 6:8)

‘Mic6:8’는 성경적 기업을 꿈꾸며 성경적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새 계명인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알리고 나누고자 활동하는 건설업자 단체이다.

이 단체는 아래와 같이 단체의 도움이 필요하신 개인이나, 미자립교회, 단체등의 접수를 받는다.

- 1.500sqft 아래의 페인트 작업이 필요하신 분
- 2.200sqft의 타일이나 플로어링 작업이 필요하신 분
3. 재료가 500불 이하의 인테리어, 건물이나 하우스의 보수작업 등

\* 집수리, 건물수리 등, 힘든 경제 속에서 부담갖고 계신 작업들에 대한 무료 보수공사 제공.

9월 한 달간 선착순으로 5분의 지원자를 접수받으며 주위에 전도가 필요한 가정이나, 재정 문제로 공사와 관련하여 힘든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을 알려주면 된다.

\* 봉사자도 모집한다. 간단한 손재주가 있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길 원하시는 어떤 분이든 환영한다.

MARK CHANG 213-819-8887  
Connected by Peniel Contractor, Inc.  
Connected by Calstar Engineering, Inc.  
후원 단체: Mic6:8선교단체.

**MICAH 6:8**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지원하는 성경적 기업과 꿈꾸며 성경적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새 계명인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의 말씀을 알리고 나누고자 활동하는 건설업자 단체입니다.  
아래와 같이 단체의 도움이 필요한 개인이나, 미자립교회, 단체등의 접수를 받습니다.

1. 500sqft 아래의 페인트 작업이 필요하신분
2. 200sqft의 타일이나 플로어링 작업이 필요하신분
3. 재료가 500불 이하의 인테리어, 건물이나 하우스의 보수작업등등

\* 집수리, 건물수리 등, 힘든 경제 속에서 부담갖고 계신 작업들에 대한 무료보수공사를 제공합니다.  
9월한달간 선착순으로 5분의 지원자를 접수받으며 주위에 전도가 필요한 가정이나, 재정 문제로 공사와 관련하여 힘든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을 알려주면 됩니다.  
\* 봉사자분들도 모집합니다. 간단한 손재주가 있고 이웃의 사랑을 위해 나눔과 같이 전도하길 원하시는 어떤분이든 환영합니다.

**MARK CHANG** Connected by Peniel Contractor, Inc.  
Connected by Calstar Engineering, Inc.  
213-819-8887 후원 단체: Mic6:8선교단체

건설업자 단체 ‘Mic6:8’가 무료 보수공사를 제공한다.

## “왜 노래 부르는게 치유적일까?”

세리토스 선교교회(담임 방상용 목사, 12413 E. 195th St. Cerritos)에서 오는 9월 22일(주일) 오후 3시 30분에 교회 본당에서 “왜 노래 부르는게 치유적일까?”라는 주제로 음악 치료 합창 세미나를 개최한다.

강사는 메트로폴리탄 주립병원 음악치료사(1988-91년)로 활동하고, 캔자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귀국 숙명여대에 한국 최초의 음악 치료 대학원을 설립한 최병철 박사(숙명여대 명예 교수)이다.

세미나는 무료이며, 성가대원, 합창단원, 음악애호가 등 모두에게 열려 있다.

문의: joyandsound.org, 657-681-9480

최병철교수의 **음악치료 합창 세미나**

**왜 노래 부르는게 치유적일까?**  
Why is singing so therapeutic?

◀ 강의의 경험의 워크숍 ▶

사람을 변화시키는 음악치료 / 음악과 건강 / 음악치료의 방법  
내음이 내는 소리 듣기 /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을 치유 / 합창으로 함께 건강하기

• 세미나 참석 무료 / 성가대원, 합창단원, 음악애호가 - 모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

##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 개강 예배 드려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이하 CTU, 총장 엘리야 김 박사)가 2024년도 가을 학기 개강 예배를 9월 16일 오전 11시에 드렸다.

피터 원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는 찬송 ‘예수 따라가며’에 이어 이경화 교수의 대표기도, 서진권 장로의 말씀 봉독 (로마서 1장 1절), 신학생들의 특송에 이어, 엘리야 김 총장이 “소명과 사명”이란 제목으로 설교했고 이학진 교수의 헌금기도, 엘리야 김 교수의 인사 및 광고, 찬송에 이어 민준기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 되었다.

CTU는 2015년도 RPCA 개혁장로회 한미연합 총회의 총회 신학교로 시작하여, 2015년 8월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미주 크리스천 신학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가 지난 16일 오전 11시에 개강 예배를 드렸다.

대학교)로 주정부의 허가를 내고 정이 있다. 김민선 기자  
이어서 주교육국에 신학전문학교주소: 43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인가를 받았으며 신학사(B.Th.), 웹 사이트: www.ctsua.org  
교역학 석사( M.Div.), 신학석사(Th.M.), 목회학 박사(M. Div.)과 입학문의: (213)272-6031

## 베델교회 장학봉 목사 초청 가을 부흥회

베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는 9월 27일(금)부터 29일(주일)까지 장학봉 목사(성안교회 담임)를 초청해 “역전의 인생으로 다시 서기!”라는 주제로 2024년 가을 부흥회를 개최한다.

집회는 27일(금) 저녁 7시 30분, 28일(토) 오전 6시, 저녁 7시, 29일(주일) 1-3부 예배 때 본당에 진행되며, 금/토 저녁 집회엔스 교육부 집회도 진행된다.

성안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학봉 목사는, 협성대학교 신학과와 감리교신학대학원 선교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미국 애슬랜드 대학교에서 목회학 박사(D.Min) 학위를 획득했다. CTS 기독교TV 편성자문위원, 나사렛대학교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CTS ‘장학

**2024 가을 부흥회**  
**역전의 인생으로 다시 서기!**

일시 9월 27일(금) 저녁 7시 30분  
9월 28일(토) 오전 6시, 저녁 7시  
9월 29일(주일) 1-3부 예배

강사 장학봉 목사(성안교회 담임)  
장소 베델교회 본당

\*금/토 저녁 집회에는 교육부 집회도 있습니다.

베델교회가 장학봉 목사를 초청해 가을부흥회를 개최한다.

봉 목사의 Happy Bible, CTS ‘삶의 현상’, CBS ‘영상설교’,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움 라디오’를 진행한 바 있다. 김민선 기자

진유철 칼럼

확실성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다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세상은 확실성을 추구합니다. 온갖 정보를 동원하고, 힘 있는 권력의 줄을 붙들고, 이 사람 저 사람, 이것저것을 동원하여 확실한 길을 가려고 애를 씁니다. 종교에서도 이단일수록 확실성을 추구하여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의 해석을 딱딱 맞춥니다. 성경대로 해석하지 않지만 확실하게 설명하니 사람들이 미혹을 당합니다. 신앙은 상황을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해 안에서 믿음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의 상황은 확실했습니까? 오히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했고, 가뭄과 흉년의 땅에서 불확실한 길을 믿음으로 가야 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좋아 보이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낭패를 만나지만, 건지시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여 믿음을 쌓아가게 되었습니다. 흠 잡힐 것 없었던 다니엘의 상황은 확실했습니까? 불 풀무나 사자굴에 들어가며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만나지만 기도로 믿음을 쌓으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언제 확실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아시아로 가고자 해도 유령으로 가라하시니, 로마로 가라해 놓고 거친 바람과 풍랑으로 불확실한 상황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늘 주님 은혜 안에서 믿음을 쌓아가므로 더 깊고 큰 승

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은 교회 생활을 오래할수록 상황 판단은 빠르고 아는 것은 많아졌는데도 오히려 믿음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확실하게 하는데 너무 쫓겨서 하나님을 알 믿음의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신학교를 다니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시험과 숙제에 쫓겨 믿음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직분자가 기도할 시간이 없고 신학생이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넘치는 정보로 원수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서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영적 습관을 반복하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 매일의 예배 성공이 쌓이고, 한기다말이 쌓이고, 감사노트와 열풍중의 기도가 쌓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혹시 '그런 작고 평범한 일이 어떻게 승리를 가져올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닙니다. 0.1cm종이는 아주 작은 것인데, 이것

을 30번 접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놀랍게도 1,073km (0.1cm x 2의 30승 = 107,374,182.4cm = 약 1,073km) 종이 30장의 두께가 아니라, 종이를 반으로 30번 접었을 때의 두께입니다. 종이를 반으로 접으면 2장이고, 또 반으로 접으면 4장, 또 반으로 접으면 8장..... 이렇게 2배씩 증가합니다. 결국, 종이를 30번 접으면 종이의 장수는 2의 30제곱이 되어 엄청난 두께가 됩니다.

1명으로 시작하여 3명에게 전해지는 아이스 버킷 챌린지가 10일 지나면 무려 88,573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도 믿음을 쌓아가는 일이 되면 그 영향력으로 세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찾을 수도 붙잡을 수도 없는 세상의 확실성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먼저 쌓아가는 승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람!

백종근 칼럼

'하위럼 선교사 조선 선교행진' (7)

백종근 목사의 저서 『예수와 함께 조선을 걷다』는 1896년 남장로교 선교사로 조선에 파송되어 전주와 군산 그리고 목포를 비롯한 호남지역에서 평생을 보내며 이 지역의 유무형의 선교 인프라를 깔아 호남선교의 토대를 마련한 하위럼 선교사의 선교일대기를 담은 책이다. 그 내용을 수회에 나누어 본지에 실는다.

데이비스와 결혼 2

어쩌면 데이비스는 내한할 때까지만 해도 독신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더구나 머나먼 은둔의 나라 조선 땅에서 목표와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와서 데이비스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그와 함께라면 더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4살 연하의 남자는 조건은 하등의 장애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것은 예정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느껴졌다. 하위럼과 데이비스의 결혼 소식은 선교부를 비롯해 내한 선교사들 사이에도 큰 화제를 몰고 왔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1898년 6월 9일 서울에 복장로교 독신 선교사 숙소에서 열렸다. 데이비스가 처음 내한해 수잔 도티(Susan A. Do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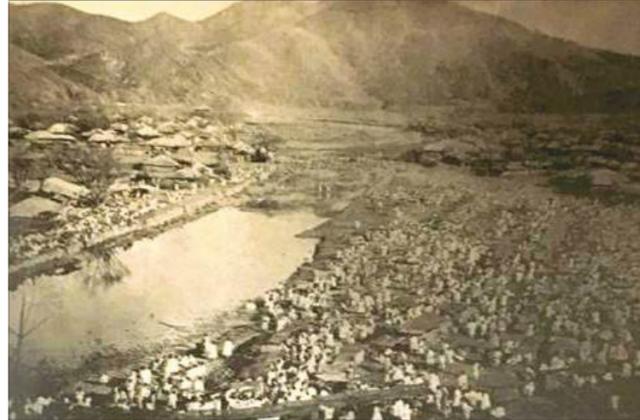
와 함께 3년 동안 거주한 곳이었다. 지루한 장맛비가 내리고 있었으나 두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오는 하객들의 참석을 막지 못했다. 아름다운 꽃들로 식장이 꾸며졌고, 주한 미국 공사 알렌 부부와 그 두 아들, 한성판윤 이채연 부부, 복장로교 무어 부부와 레이놀즈 부인 그리고 정신 여학교 학생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주례는 레이놀즈 목사였다.

잠식한 모든 이의 축복 속에 조출한 결혼식을 마친 두 사람은 함께 군산에 내려왔다. 데이비스의 살림을 마차에 싣고 전주 은송리 선교사 숙소로 이사하는 그 날, 참으로 황홀한 시간이었다. 휴먼지가 나는 40Km의 황토길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신혼여행은 그해 8월에 일본에서 열리는 선교사대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했다.

1차 안식년(1899~1900)

당시 그녀에게 붙여졌던 울트라 선교사라는 별명처럼 쉴 틈이 없이 사역에만 매달리던 데이비스는 눈에 떨 정도로 몸이 쇠약해지고 있었다. 1899년에 접어들자 그녀는 휴식을 취하지 않고는 안될 상황까지 이르렀다. 마침 그해 9월 제물포에서 열린 제8회 선교부 연례회의에서 주변의 동료들은 데이비스에게 안식년 휴가를 권고했다.

안식년 제도는 6년을 일하고 1년을 쉬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안식년에 해당하는 본인이 먼저 신청하는 데 반해, 데이비스는 7년 차가 되던 해에 동료 선교사들이 나서서 권고했다는 사실은 그녀가 얼마나 자신의 사역에 몰두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데이비스의 안식년이 결정되자



하위럼 선교사가 전도하던 전주장터(남문밖 시장으로 추정) 멀리 기린봉이 보인다.

하위럼은 내한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자신은 배우자로서 그녀와 함께 안식년을 갖는 뜻밖의 행운을 누렸다.

데이비스가 조선에서 하위럼을 만나 결혼하고 첫 안식년을 맞아 남편과 함께 미국에 돌아간다는 일

정이 잡히자 설렘보다는 오히려 설움이 물려왔다. 내한한 지 9일 만에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접하고도 장례식조차 참석할 수 없었던 어머니에 대한 기억만으로도 그녀는 눈시울이 젖고 있었다. 그나마 안식년을 맞아 남편과 함께 고향에 돌아가 어머니의 묘소만이라도 돌아볼 수 있다는 생각에 잡기며 그녀

러 있을 수만은 없었다. 켄터키와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테네시주의 여러 교회를 순회하며 조선 선교상황을 보고하고, 기도와 지원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일 년간의 안식년을 보내며 활력을 회복한 하위럼 부부는 1900년 10월 8일 캐나다 밴쿠버를 떠나 11월 5일 제물포를 통해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다.

데이비스와 복음사역에 전념하다

안식년으로 선교사들이 한꺼번에 자리를 비운 사이 전주지부에는 의사인 잉골드만 남아 스테이션을 지키고 있었다.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온 하위럼 부부는 그동안 중단되어 있던 레이놀즈와 테이트의 사역을 이어 활동을 개시했다.

선교사들이 자리를 비운 5개월여 동안에도 50여 명 정도의 교인들은 한 사람도 흔들림 없이 자체적으로 예배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위럼과 데이비스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모두가 환영하며 반겼다.

이때부터 하위럼은 팔을 걷어붙이고 교인들의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가장가장들을 권면하는 일에 공을 들였다. 그뿐 아니라 성문 근처에서 정기적으로 장이 서는 것을 유심히 살피던 그는 5일마다 열리는 장터에 관심을 가지고 장터를 돌며 전도하기 시작했다.

2024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S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달빛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BHE, ATS, ACSI, SACS 인증 대학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입학문의 (562) 926-1023, ext. 30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ACSI, SACS 인증 대학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ABHE, ATS, ACSI, SACS 인증 대학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잘 계시죠?** 라는 말은  
**건강하시죠** 라는 말

**식사는 잘 드시죠?** 라는 말은  
**건강하시죠** 라는 말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은  
**건강하시죠** 라는 말

새로워진 **서울메디칼그룹**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인사를 전합니다.

**SMG**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김영한 칼럼

# 제4차 로잔대회 of 역사적 개최와 성공을 기대한다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 원장

### 로잔운동에 바라는 한국교회의 관심

#### 1. 복음 전파의 우위성 놓지 않기 바람

로잔운동은 복음 전파의 우위성을 놓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WCC(세계교회협의회)의 전철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1948년 WCC가 태동할 때 교회들이 연합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자 해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사회적 책임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유엔과 국제 세상단체들이 해야 할 일들까지 시행하고자함으로써 복음전도를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Missio Dei 개념을 인간화(세상 평화 수립)로 해석함으로써 전통적 복음전도를 놓치게 된 것이다.

로잔대회는 이러한 WCC 선교개념의 인본주의와 실수를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 복음전도의 우선순위를 확고하게 붙잡을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과 섬김은 복음 선포의 중요한 요소이며 사회적 책임과 섬김 없는 선포 역시 설득력이 없고 복음전도를 시킬 수 없다. 그러나 복음의 선포를 소홀히 하는 사회적 섬김은 단지 인본주의로 흐를 수 있다. 그래서 로잔운동은 총체적 선교(holistic mission)를 천명하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사회와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진정한 원인이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에 있기보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에 있다는 사실이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비인간화가 되었는데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릴 수 없으며 스스로 책임질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죄의 사회적 구조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죄의 사회적 부조리한 구조는 일차적으로는 정부와 세계의 기구들이 정의의 구현을 해야 하나,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변해야 하고, 사회가 구조적으로 변해야 한다. 정부는 강제력을 동원해서 외적으로 실현하나, 교회는 인간 본성을 사랑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면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사회적 구조 변화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의한 인간 본성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복음 전도이다. 복음 전도에 의한 인간 본성의 변화는 그 결실로서 그가 사는 사회적 구조가 정의롭게 변화되는 사회적 책임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 선교의 총체적 복음이다.

인간에게 있어 최악의 단절, 분리, 격리, 고

립은 인간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분리이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인간 사이의 단절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서는 참된 인간화(true humanization)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정한 인간화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사회적 봉사과 섬김과 변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것이 로잔운동의 총체적 복음이다. 로잔운동은 복음전파의 우선성과 아울러 사회적 책임이라는 총체적 선교를 항상 견지해나가기 바란다.

#### 2. 복음 전도 우위성 아래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

케이프타운 서약은 독일 선교학자 칼 하르텐슈타인(Karl Hartenstein)이 제안한 “하나님 선교”(Missio Dei) 개념을 본래 복음주의 의미로 바르게 해석하였다. 하나님 선교란 선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선교하신다는 것이다. 교회와 선교사(宣教師)는 하나님의 선교에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르텐슈타인이 제안한 본래적인 하나님 선교(Missio Dei)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인류의 영혼구원이라는 구속사의 거대한 사역에서 교회와 선교사는 보냄을 받은 하나의 도구요 청지기여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르텐슈타인은 모든 인간적 열정, 즉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속삭이는 모든 인간중심주의와 인간 행동주의 선교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선교, Missio Dei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래 Missio Dei 개념에서 우선성은 복음 전파로 인한 영혼의 구원이다.

그런데 이것이 WCC 사회선교 우선주의 자들에 의하여 세계의 평화라는 개념으로 왜곡된 것이다. WCC 선교학자 호켄다이크(Hoekendijk)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개념을 인본주의화시켰다. Missio Dei의 인본주의적 해석은 “확대된 선교” 개념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모든 일을 다 선교로 포함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세상의 구원 아닌 세상의 살림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서 살림은 개인 영혼 구원 이상의 것으로 평화, 정직, 공동체, 조화, 정의 등의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사회적 사건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살림이란 JPIC(Justice 정의, Peace 평화, Integrity of Creation 창조질서의 보존)로 요약된다. 그리하여 선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선교의 본질과 핵심이 흐릿해지는 경향이 있다. 확대된 선교 개념은 선교개념이 영혼 구원에서 인권 운동, 사회운동, 복지운동, 환경운동 등으로 축소 왜곡되는 것이다. 1968년 우살라(Uppsala) WCC 총회는 에큐메니칼 신학의 새속과 경향이 초고조에 달했던 때였는데 Missio Dei를 인간화(humanization)로 보고, 선교의 어젠다는 성경이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제시한다고 봄으로써 선

교개념이 성경에서 이탈하고 세속화와 인간화가 야기된 것이다.

WCC 에큐메니칼 진영의 구원 개념은 세상의 구원보다는 세상의 살림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세상의 살림은 복음전파와 영혼구원이라는 예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고 왜곡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WCC의 Missio Dei 아래서 복음전파와 영혼구원으로서 선교 개념의 본질과 핵심이 상실되어, 실제로 사회 구원이 이루어지거나 영혼 구원은 실현되는 것은 거의 없는 빈 수레와 같은 교회로 전락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사회적 책임은 영혼의 변화와 구원이라는 복음전파의 근거 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2010 제3차 로잔대회는 Missio Dei 개념으로 본래적인 선교개념으로 복원시키고 있다. 케이프타운 서약 1부 신앙고백 마지막 장 제목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사랑한다”에서 케이프타운 서약은 하나님의 선교를 언급한다: “세계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를 드러낸다. 하나님은 죄와 악으로 깨어진 창조세계를... 새로운 창조세계로 변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선교를 성취시킬 것이다.”( 케이프타운 서약 1부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케이프타운 신앙고백 10.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사랑한다”)

#### 3. 양자의 균형 잡기: 끊임없는 말씀 앞에서 자기 성찰과 개혁.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총체적 선교를 올바르게 해석해야 한다. 교회는 복음전파와 사회적 책임을 불가분적으로 이해하되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복음전파를 우선 순위로 하는 신학적 입장을 가져야 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 4:2) 그리하여야 복음전도를 위한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과 계획은 죄와 세상 가운데서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선교의 목적은 복음 전도이기에 이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총체적 선교사역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 양자는 균형잡아야 하며, 불가분적이며, 통전적(integrated)이어야 한다. 개혁교회가 항상 말씀 앞에서 자기 성찰하고 자기 개혁을 시도하는 것처럼 로잔운동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성찰과 자기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

#### 4. 제4차 로잔대회 선언문에 AI 시대의 신자들의 삶의 가치관, 북한 주민의 신앙과 인권 관련 및 성혁명,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거부에 대한 한국교회의 염원을 담기를 바란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AI(인공지능)이라는 문명의 이기를 어떻게 선용해야 하느냐의 시대적 요청에 직면하고 있다. 오늘날 그리스도교회가 AI에 대한 기술적 선용과 아울러 이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혜

를 가져야 한다. 이번 4차 로잔대회는 젊은 청소년들과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인터넷 미디어, AI에 대한 올바른 해석, 하나님이 주신 문화적 위임(cultural mandate)을 바르게 인식하게 하고 이를 슬기롭게 사용하는 신앙적 지혜를 제시해 주기 바란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고무풍선 띄우기 등 도발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 북한 주민의 신앙의 보전과 인권개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동성애 허용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이 폐기를 바라고 있으며, 지난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에 자행된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사회도덕적 퇴폐성과 부당성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서양 윤리도덕의 원천인 기독교 정신이 구미(歐美)사회에서 복구 및 활성화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4차 로잔대회선언문에서 이러한 한국교회의 기도와 염원이 반영하게 될 때, 이것은 로잔대회가 개최된 한국사회와 교회에 큰 선물을 주는 것이 된다.

**맺음말: 한국교회는 4차 로잔대회가 복음주의의 가치 아래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축제가 되도록 함께 참여하고 기도하는 것이 요청된다.**

한교총은 4차 로잔대회와 업무체결하여 협력하고 있다. 예정 고신, 합신, 합동 총회는 이들 교단 소속 목회자들과 신자들 개인적인 참여의 길은 열어놓고 있다. 총회에 속한 개인과 교회에 로잔대회에 참석을 금지할 만한 신학적 문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로잔운동은 1974년 로잔 복음화대회에서 시작해서 2024년에 이르기까지 50년의 역사를 거쳐 4차 대회를 맞이한 지금도 여전히 복음전도의 우선성을 강조하고 있다. 1974년 1차 로잔대회는 복음의 함의(含意)를 개인적 영역의 영혼 구원과 사회적 영역의 책임으로 설명했으며, 1989년 2차 마닐라 로잔대회는 그 영역을 영적인 영역으로 확대하고, 3차 케이프타운 로잔대회는 창조세계의 돌봄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정신을 강조했다. 최근 로잔 운동의 흐름을 보면, 복음의 적용 대상이 확대됐을 뿐, 복음전도의 우선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현재 4차로잔대회는 디지털과 인공지능 영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서 로잔운동이 각 시대의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구성원들이 한국에서 열리는 제4차 세계로잔대회에 참여하여 성경적 복음주의 선교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면, 로잔 운동이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총체적 선교를 초지일관 견지하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활력을 되찾는데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끝>

전문작가와 함께 하는

# 내 인생의 자서전 쓰기

당신이 지금 여기에, 뜨겁게 숨쉬며 살았다는 것, 그 노동하고 한란한 삶의 흔적을 남기세요.

자서전을 통해 당신의 값진 순간은 눈부신 영원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기독일보  
T.(213)739-0403, (213)434-1170  
www.cowriter.co.kr  
chdailya@gmail.com

기록되지 않은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Record is Memory

# 제5차 글로벌복음통일미션 컨퍼런스 Global Reunification Korean Mission Conference

# Bangkok 2024



세부안내/등록 [www.gideonbrothers.org](http://www.gideonbrothers.org)  
[www.tmtc.co.kr](http://www.tmtc.co.kr)

**주제** “디아스포라 복음통일연합방안”  
“다음세대와 복음통일방안모색”



기간 \_ 2024. 10월 29일 ~ 11월 1일  
장소 \_ **방콕한인연합교회**(신상태 담임목사)  
63, SOI 44, PHATTANAKARN RD;  
SUANLUANG, BKK 10250  
(숙박장소\_THAYA HOTEL BANGKOK)  
대상 \_ 담임목사 / 북한선교담당자 / 위 주제 관심자 모두  
참가비 \_ \$250(30만원)/1인

\* 추가음선일정(11월 1일~3일, 탈북루트 치앙라이 외 1곳) \_ 등록사이트 참조



주최 | 글로벌복음통일미션네트워크

주관 | TMTC | Total Mission Training Center  
(사)글로벌연합선교훈련원

기드온동족선교  
GIDEON BROTHERS MISSION WORLD

협력 | 방콕한인연합교회

협찬 | BELL INTERNATIONAL ACADEMY

기독교일보

문의 | 대회본부 (425)775-7477 | 개최교회 (093)139-6520 | 기타 (82)10-9294-3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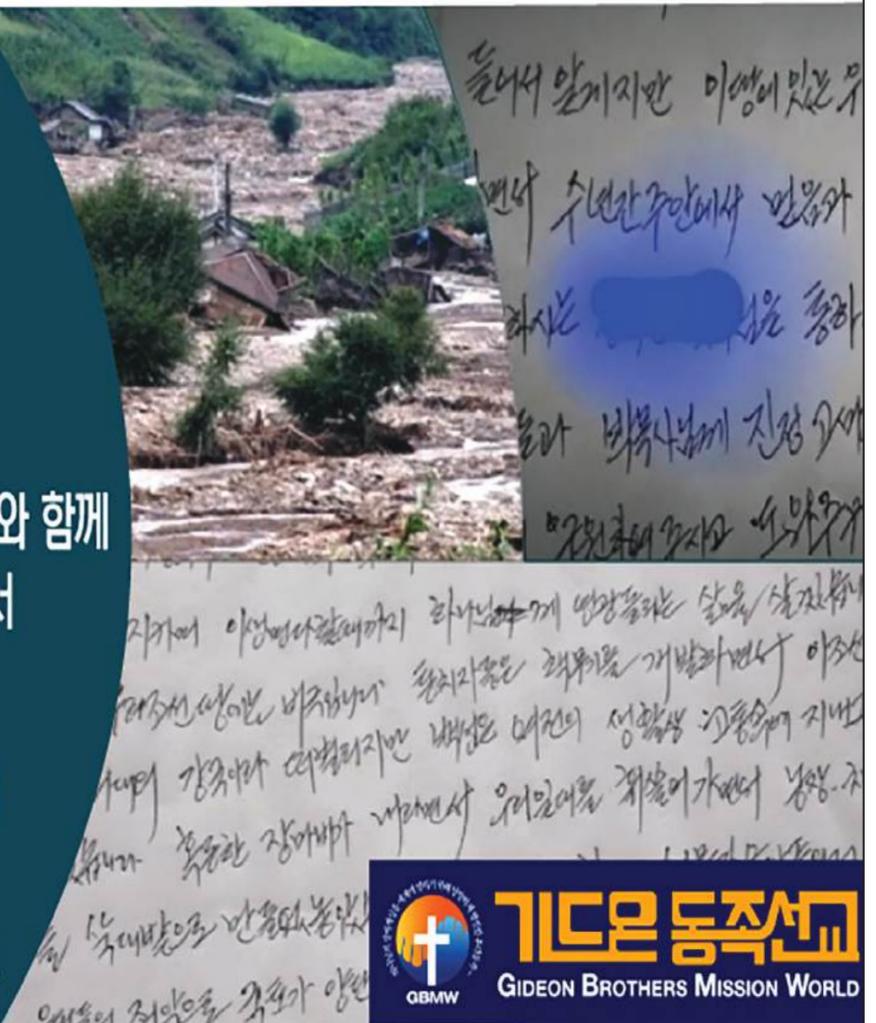
## 홍수로 고통중인 북녘지하성도들을 도와주세요!

지난 5월 춘궁기 양식을 잘 받았다는 감사편지와 함께  
최근 큰 홍수로 농장, 채소밭이 쓸대밭이 되어서  
큰 고통중에 도움 요청편지...8월9일

모든 후원헌금은 연말세금  
공제의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메모: '홍수돕기' 기입)



후원  
QR  
코드



기드온동족선교  
GIDEON BROTHERS MISSION WORLD

후원방법: PayPal - swp2019 , Venmo - won06danny , Zelle - 4252758072 , 체크오더명: GBMW(아래주소로)

기드온동족선교  
GIDEON BROTHERS MISSION WORLD

Tel. 425.775.7477  
16825 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gbmwusa@gideonbrothers.org | www.gideonbrothers.org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제자 훈련은 복음 훈련이다

# 존 스토트와 옥한흠의 제자에게 배우는 제자훈련



넘어진 제자 훈련 넘어서기

김대조 | 국제제자훈련원 | 280쪽 | 16,000원

제자훈련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 힘들고 어렵지만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 당장이라도 훈련만 받으면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바른 사람이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제자훈련을 하는 지도자든, 제자훈련을 받는 훈련생이든 모양은 달라도 주님 안에서 훈련 가운데 있다는 것만으로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말씀으로 세우면 된다는 믿음으로 시작한 제자훈련이 어느 순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지식만 가득한 제자를 만들었음을 깨닫는 과정이 이 책에 모두 녹아있다

제자훈련은 기독교의 엔진과 같다. 오늘날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과 프로그램, 시스템과 행정을 갖추려 애쓰지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방식은 매우 단순하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마 28:19)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가장 큰 사명이며 유일한 사명이다.

그런데 이 단순한 임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어떤 교회는 제자훈련을 성공공부로 이해하고 체계적이고 풍부한 교리와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일에 힘쓴다. 어떤 교회는 제자훈련을 교회에서 섬길 봉사자를 훈련하는 장으로 여기고 순종적으로 헌신하여 섬길 일꾼을 양성하는 데 주력한다.

많은 목회 현장에서 셀그룹, 가정교회, 구역집회 등은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다른 교회 사역의 연장선에 머무는 한계를 드러낸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여 명의 소수가 제자훈련에 이상적이라며 예루살렘 교회의 예를 들지만, 오순절 성령 역사로 수천이 더해진 교회가 매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며 같은 마음으로 사도의 가르침 아래 성장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제자훈련의 성패가 단순히 이상적인 규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결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제자훈련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제자 훈련을 실천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사람은 아마도 옥한흠 목사일 것이다. 대형교회로 성장한 후에도 가장 행복했던 때는 몇몇 성도와 함께 제자 훈련을 했을 때라고 고백한 옥한흠 목사는 많은 교회가 모델로 삼는 제자훈련 체계를 유산으로 남겼다.

그러나 눈으로 보고 글로 읽은 것만으로 우리는 성공적인 제자 양육을 이룰 수 없다.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제자훈련의 완벽한 모범 자체가 단순히 지식적 가르침이나 봉사의 훈련이 아니라, 실수와 실패를 반복해서 경험하는 제자의 삶을 신

실하게 빚어가는 도제 교육이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제자훈련 원칙을 설명하는 책이나 제자훈련 내용을 담은 교재가 아니라, 제자훈련을 한 사람의 유익한 경험과 실제 조언이 더 필요하다. 존 스토트에게 복음주의적 교리와 목회를 배우고, 옥한흠 목사에게 제자훈련 목회를 배운 사람이라면 어떨까? 이번에 국제제자훈련원에서 <넘어진 제자훈련 넘어서기>를 쓴 김대조 목사처럼 말이다.

김대조 목사는 이 책에서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룬다: ①제자 훈련이 빠지기 쉬운 함정 ②실패를 넘어서는 제자 훈련 법칙. 책은 표지에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제자 훈련 실천 전략’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밑에 바로 따라오는 ‘넘어짐을 성장의 기회로 만든, 세상에서 가장 솔직한 제자 훈련 이야기’가 더 내용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저자는 놀랄 만큼 솔직하게 7년의 제자훈련 실패담을 생생하게 소개한다. 주일학교 학생 0명에서 수년 만에 1,000명의 어린이가 모여든 교회 목사가 꺼내놓기 쉽지 않은 말이다. 저자가 지금 섬기고 있는 주님기쁨의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인간적인 탐욕에 사로잡혀 부정직한 일을 저지른 것도 아니다. 하지만 저자는 1부에서 자신이 헌신했던 제자훈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진심으로 뉘우치며 독자에게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호소한다. 제자훈련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세우는 것으로 복음의 지혜와 능력이 일으키는 역사를 돕는 방편이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대체할 일꾼이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자기 의가 가득 찬 교만한 죄인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저자가 경고하는 골자다. 만일 저자가 후반부에서 ‘이렇게 하면 제자훈련은 완벽하게 성공한다’는 식으로 해법을 제시했다면, 깊이 사고하는 독자는 분명 ‘아직도 함정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구나’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하



예수님이 넘어진 제자를 일으키시는 모습을 그려 달라고 부탁하자 마이크로소프트 Bing AI인 Copilot가 제작한 그림. ©Copilot

지만 김대조 목사는 그렇게 절대적 법칙을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훈련을 과대포장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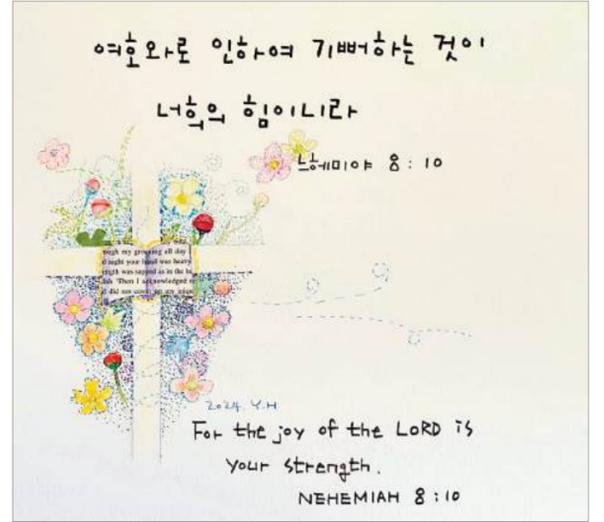
‘성공적’이란 말이 붙는 제자훈련은 숫자를 늘리거나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돌아가거나 교회에 참석하는 성도의 만족도가 높아지거나 봉사하려는·봉사할 수 있는 일꾼이 늘어나는 것으로 단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건강한’ 제자훈련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자신의 옛 사람을 날마다 자기 십자가에 못 박는 진정한 회심의 삶으로, 항상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에 매료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복음의 은혜 아래 거하며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고 달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빛는다. 요컨대 성경적인 제자훈련의 엔진은 ‘오직 복음’이라는 원료로 건강하게 작동한다. 다른 불순물은 엔진을 망가지게 할 뿐이다.

김대조 목사의 <넘어진 제자 훈련 넘어서기>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와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제자들에게 유익한 책이다. 저자의 솔직한 간증과 진심어린 조언을 듣고 적은 무리를 제자로 삼더라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요구하신 방식대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을 닮은 제자가 되도록 함께 세워주는 제자훈련이 교회마다 일어나기를 간구한다.

조정익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명희 권사



용수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 제2기 성경 필사 후원자 모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3:16~17)

관심과 기도 그리고 물질로 후원해 주실 후원자분들을 찾습니다.

오늘 날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세상 미디어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며 살고 있습니다. 이에 신약성경 6권(사복음서, 사도행전, 로마서)의 성경 말씀 필사를 통해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길 원합니다. 지난 1기 성경필사 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37명에게 전달했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풍성한 영적 승리의 열매가 맺힘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제2기 성경필사 장학생 33명이 선정되어 2024년 7월 20일부터 필사를 시작하여 12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치열한 영적전쟁을 치루며 모든 유혹을 이기고 모두가 필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기도할 때 승리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후원방법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기부금은 세금공제 서류 발급 가능)  
 CHASE BANK Account #: 611921385  
 Routing #: 322271627  
 Zelle: chdailyreporter@gmail.com

성경 필사 본문 (한글, 영문 선택 가능)

마태복음 · 마가복음 · 누가복음 · 요한복음 · 사도행전 · 로마서

성경 필사 후 소감문 작성자 중 선별하여 특별 상품 수여

1등

노트북

2등

아이패드

3등

에어팟

\* 상품은 광고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독일보

주최: 기독일보 | 주관: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 chdailyreporter@gmail.com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샤먼: 귀신전> (2)

# 한국교회, <샤먼: 귀신전> 등 대중문화로 파고드는 무속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귀신에게 고통받는 이들과 무당들의 체험담을 사실대로 담아낸 다큐멘터리, <샤먼: 귀신전>. ©티빙

### 한민족 정신 뿌리내린 무속 선교사들, 의술로 무속 이겨 미신으로만 치부한 건 아쉬워 무속 대응 가능 성경적 지혜 회복해야 할 시대적인 소명

**무속에 대한 의존성: 양반들과 왕실조차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무속**

고려조 때도 조선조 때도, 무속은 한반도의 지배층으로부터 천대받는 종교 풍습이었다. 그렇다 해서 무속이 무조건 금기시되지만 했던 것은 아니다.

지배층의 심기만 거스르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무속인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았다. 한반도 민중과 무속 사이 오래된 끈끈한 관계를 국가 권력이 강제로 끊어놓을 수는 없었다.

심지어 일부 지배층 인사들, 즉 왕실 구성원이나 고위 양반가문에서도 무속에 심취한 이들이 항상 존재했다. 조선조 숙종의 왕비였던 장옥정(장희빈)의 사례가 가장 유명하다. 원래 왕비였던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왕비의 자리에 올라선 장옥정은 숙종과 인현왕후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궁궐 안에 무당을 불러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의식을 벌였다.

이 일이 밝혀지며 장옥정은 숙종으로부터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명을 받아 죽는다. 이 사건을 '무고(巫蠱)의 옥'이라 하는데, 여기서 무고란 무속의 저주의식을 말한다.

사실 조선 왕실에 이와 비슷한 사건은 여러 차례 일어났다. 조선왕조실록은 광해군 때, 영조 때, 그리고 정조 때에도 궁궐 내에

서 저주의식을 행한 이들이 줄줄이 사형당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저주가 아닌 병의 치유를 위한 곳이나 의식은 워낙 흔하게 시행되어 별로 특별한 일로 여겨지지도 않았다. 왕실에서도 왕이나 세자, 왕자들이 병들었을 때(특히 두창에 걸렸을 때) 왕실 여인들이 무속인을 불러 구를 시행하곤 했다. 양반 가문도 비슷한 형국이었다.

즉 전근대 한반도에서 무속은 평상시에는 천시되는 풍습이었으나,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나 재앙의 앞에서는 어떻게든 의지가 되는 종교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렇게 한민족의 정신에 뿌리깊게 내린 무속을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전면 부정할 집단은 바로 기독교회였다.

주로 미국에서 건너온 한국의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은 교인들이 무속인에게 의지하는 것을 주로 구약의 가르침에 따라 엄금했다. 그들은 '신성한 자'에게 앞날을 묻고 병나음을 얻으려 하는 것이 영적으로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철두철미하게 가르쳤다.

고려조와 조선조 당시 무속이 '점차 교화해 나가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함께하는 종교적 풍습'이었다면, 구한말 개화기 기독교인들에게 무속은 '순전한 신앙생활을 위해 반드시 타파해야 할 우상숭배'였던 것이다. 게다가 서양 선교사들은 이전에 불교나 유교를 숭배하던 한반도 지배층이 갖지 못했던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었다. 바로 서양 의학이었다.

조선에 처음 입국했던 서양 선교사 호러스 알렌은 뛰어난 외과의사였다. 그는 갑신정변 당시 왕비 민자영이 아들처럼 아끼던 조카 민영익의 목숨을 구해준 일로 조선 왕실의 신임을 얻었다. 민영익이 개화파의 칼에 맞아 사경을 헤맬 때 여의들은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조선 외부협관(외교

문)으로 일하고 있던 독일인 외교관 목인덕(뮐렌도르프)은 서양 의사 알렌을 강력히 추천했다. 이에 알렌은 시급하게 달려와 민영익을 수술해 그의 목숨을 살려냈다.

**무속에 대한 무지: 한국 샤머니즘에 대한 서양 선교사들의 무지**

이 일로 조선 왕실은 서양 의학의 힘에 놀랐고, 갑신정변으로 역적이 된 우정축국 총판 흥영식의 저택을 알렌에게 하사하여 광혜원(곧 제중원으로 변경)을 설립했다. 물론 여기에는 서양 의학의 힘을 빌리려는 의도뿐 아니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서구 열강인 미국의 환심을 사려는 목적도 컸다.

어쨌든 이 제중원은 한국 초기 개신교 선교의 전진기지 역할을 맡았다. 그리고 도성 백성들에게 서양 의학의 힘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했다. 1886년 한양도성에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 약 6천 명이 일시에 사망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그러나 제중원 의료선교사들의 말을 들었던 이들은 대부분 콜레라에 걸리지 않았다. 이에 1895년 다시 도성에 콜레라가 발생하자, 조선 조정에서는 "예수병원에 가면 살 수 있는데 왜 죽으려고 하는가"라는 말을 불렀다고 한다. 이로써 천연두나 콜레라가 창궐하면 무조건 무당을 찾아야 하던 도성 백성들의 인식이 크게 변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점차 지방에까지 퍼지면서 무속인들의 영향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한국 기독교회는 주로 북미에서 넘어온 선교사들의 공로에 힘입어 설립됐고, 당연하게도 그들의 세계관과 인간 이해를 이어받았다. 그런데 이들 선교사들의 세계관 속에는 기독교 세계관뿐 아니라 서구 근대 세계관 또한 뒤섞여 있었다. 서양 선교사들은 칸트 선형론이나 과학적 실증주의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아 초자연적인 힘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불가지론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복음의 핵심인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가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예를 들어 병나음을 위한 기도의 힘은 인정했지만, 안수를 통해 병이 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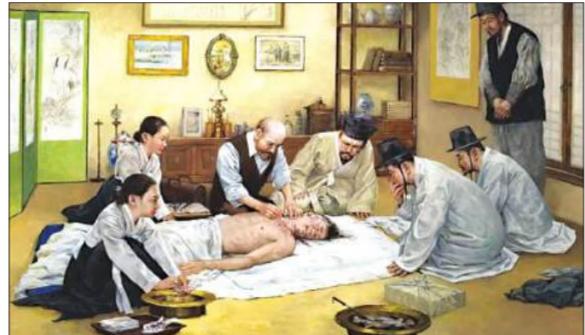
는 이적에 대해서는 가르치기를 꺼렸다. 이는 아마 한반도에 처음 건너온 선교사들 중심적 역할을 했던 이들 중 상당수가 의사(알렌, 존 헤론, 올리버 에비스, 필리어스 호튼)였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이들의 헌신은 한반도에 복음을 전파하고 무속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다소 아쉬운 측면도 있었다. 바로 무속을 '근대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에 대립되는 미개한 미신으로만 치부한 일이었다.

성경에는 한국의 무속인에 해당되는 샤먼들, 즉 신성한 자들에 대한 기록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성경은 이 샤먼들을 대하는 영적 지혜와 권능을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19세기 미국 선교사들은 한국의 무속을 대할 때,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근대적·과학적 인식론에 입각해 무속을 무조건 지탄하고 멀리하도록 가르쳤다.

이 과정에서 샤머니즘에 대응하기 위한 성경적 이해는 상당 부분 묻히고 말았다. 신성한 자, 점하는 자, 귀신에게 제사하는 자들의 이면에 어떤 영적 세력이 활동하고 있고, 그 세력을 물리치는 영적 전쟁을 위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며 어떤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가르침과 지혜, 그리고 교회에 축적된 '노하우'가 한국교회에 적절하게 전달되지 못했던 것이다.



김건배 화백의 유화 작품으로, 알렌의 민영익 수술 장면을 묘사했다. 알렌 옆의 서양인 조선 고관이 독일인 외교관 목인덕이다. ©세브란스병원

지금의 한국교회가 대중문화와 온라인·모바일 기술을 통해 다시금 문화적 영향력을 강화해가는 무속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데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자리잡고 있다. 교회가 한국 전통의 샤머니즘인 무속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지혜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이, 무속은 한국인들과 역사적으로 긴밀하게 맺어진 정서적 친밀감을 되살리며 보다 세련되고 현대화된 모습으로 대중에게 접근하고 있다.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http://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거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 1-877-580-2424    ☎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 중서 구금된 미국인 목회자, 18년만에 가족 품으로

미국 국무부가 미국계 미국인 목사 데이비드 린(68)이 20여 년 만에 중국 감옥에서 석방되어 본국으로 돌아왔다고 15일(이하 현지 시간) 발표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국무부는 성명에서 "데이비드 린이 중화인민공화국 감옥에서 출소한 것을 환영하며, 그는 거의 20년 만에 가족과 상봉한다"고 밝혔다.

린 목사의 딸 엘리스 린은 국무부가 지난 14일 아버지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석방되어 15일에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 도착할 것이라고 알려줬다고 전했다. 그녀는 폴리티코에 "이 기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동안 못다한 시간을 많이 채워야 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던 린은 2006년 베이징에 기독교 훈련 센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은 뒤, 출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그는 불확실한 이유로 구금되었고,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2009년 12월에는 중신형을 선고받았으나 모든 혐의를 그는 부인했다. 여러 차례 감형을 받은 그는 2029년에 석방될 예정이었다.

린 목사는 중국의 지하 가정교회 운동에 활발히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교회는 주로 개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 모임으로, 중국 당국은 이를 불법 사회 단체로 규정하여 단속하고 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이 운동이 "오랫동안 중국 당국의 적대감을 받아왔으며, 참석자들은 협박, 괴롭힘, 체포, 가혹한 형벌에 직면한다"고 밝혔다.

린 목사는 결백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대외적으로 이목을 끌지 못했다. 딸 엘리스는 2019년 라디오 프로그램 '워싱턴 위치

(Washington Watch)'에 출연해 아버지가 투옥을 하나님이 정하신 선교지로 받아들여 사건을 공론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녀는 아버지가 가족에게 "관리들이 문서를 위조하고 심지어 자백서에 서명하라고 했지만, 잘못된 것이 없으므로 서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분명한 사실은 아버지가 중국에 있었던 이유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큰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이다"며 "그분은 교회와 기독교 훈련 센터를 세우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으며, 신앙 때문에 투옥되었다"고 말했다.

엘리스는 "아버지가 자유의 몸이었을 때 가족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고 계신다. 내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다. 부디 걱정하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만 해달라. 나는 곧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였다. 이것은 자그만치 10년 전의 일이다"고 회상했다.

15일 미국 정치인들은 린 목사를 지지하며 해외에 구금된 다른 미국인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공화당 소속 텍사스 하원의원 마이클 맥콜은 15일 엑스(X·구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데이비드 린이 석방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매우 기쁘다. 그의 역류는 전 세계 권위주의 정부에 의한 인질 외교의 증가 추세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중국 억류자들을 지원하는 캘리포니아 소재 비영리 기관 '두이화 재단'(Dui Hua Foundation)은 린 목사의 석방을 환영하며, 중국 내 200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강압적 조



중국계 미국인 데이비드 린 목사. ©FreePastorLin.com

치'를 받고 있으며, 그 중 30명은 출국이 금지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오픈도어스(Open Doors USA)가 발표한 월드워치리스트(WWL)에 따르면, 중국은 심각한 기독교 박해 국가 중 하나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비인간 교회를 집중 단속하며 수많은 신자들을 체포하고 교회를 폐쇄했으며, 특히 가정교회를 대상으로 엄격한 규제와 디지털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기독교인 인권 단체 '차이나에이드'(ChinaAid) 설립자인 밥 푸 목사는 이전에 C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최고 지도부는 기독교 신앙의 급속한 성장과 대중의 존재감,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 이는 중국 내 기독교인 수가 당원 수를 훨씬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화(Sinicize)된 기독교'를 장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3월, 중국은 '불법 국경 통과 조직'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존 카오 목사를 석방했다. 당국은 2017년 3월 카오 목사와 그의 동료인 정 루샤를 체포한 뒤, 미얀마와 중국 사이의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었다며 기소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거주하는 중국계 미국인 카오는 국경을 넘기 전, 미얀마 북부 와주에서 2000명의 가난한 소수민족 아이들을 위한 16개의 학교를 세웠다. 8월에는 중국 서남부 구이저우성의 구이양 법원이 가정교회 장로 장춘레이에게 '국가 권력 전복'과 '사기'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이 재판은 대중의 참석이 엄격히 제한된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진 기자

## 자살한 기독교인의 구원과 장례에 대한 문제



이상원 교수가 강연하고 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홍순철)가 14일 오후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날 이상원 교수(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 전 총신대 기독교윤리학교수)가 '자살 유가족 돌봄사역'에 대해 강의했다. 이 교수는 "자살의 유혹에 직면한 사람들

에 대한 돌봄은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전조증상을 민감하게 감지해내어 그 증상을 통해 나타난 위험요인들을 해결하는 것을 돕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자살로 생을 마감한 유가족을 돌보는 문제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기독교인 유가족에게 가장

어려운 돌봄은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전조증상을 민감하게 감지해내어 그 증상을 통해 나타난 위험요인들을 해결하는 것을 돕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자살로 생을 마감한 유가족을 돌보는 문제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기독교인 유가족에게 가장 힘든 문제는 자살한 유가족 구성원의 사후의 운명 곧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이라며 "자살한 유가족 구성원이 신앙고백이 있었고 신앙생활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살 때문에 구원에서 배제되고 영원한 형벌

에 처하게 된다면 유가족은 헤어 나오기 어려운 좌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뿐만 아니라 자살한 가족의 장례는 어떻게 처리할지 할지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자살한 유가족을 돌보는 방향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그는 "첫째로, 신앙고백이 있었고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살한 유가족 구성원은 자살 때문에 그동안 행했던 신앙고백이나 신앙생활이 모두 허사가 되고 구원에서 배제되는 것인가 하는 신학적 문제에 대해 성경적인 답변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의 방향은 구원이 값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통해 결정되는 것일 뿐, 어떤 인간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유가족을 무당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둘째로, 교회가 자살한 유가족

성원에 대한 장례절차를 진행해 주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답변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의 방향은 자살한 기독교인의 경우라도 다른 이유로 죽음을 맞이한 기독교인들을 위한 장례절차를 진행할 때와 동일하게 장례절차를 진행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셋째로, 자살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심각한 윤리적인 죄임을 명확하게 인식시켜 주고, 자살에의 충동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임을 확실히 알려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인간에게는 삶의 충동은 본능적인 충동으로 주어지지 않지만 죽음에의 충동은 본능적으로 주어지지 않음에 의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충동으로서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 자살을 하도록 유도하는 사회적인 원인은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한 것임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The Han-in Christian Elders' In California

**제16회 선교와 이웃돕기 위한 사랑의 찬양제**  
초가을에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참가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찬양제 출연팀**

남가주 장로성가단 : 지휘 장진영  
LA 목사중창단 : 지휘 서문욱  
보블리스 합창단 : 지휘 김철이  
무궁화여성합창단 : 지휘 지경  
실버치 사랑의교회 : 지휘 송정현  
아리랑합창단 : 지휘 김정민  
나성 한미교회 중창단 : 지휘 이준실  
외대 동문합창단 : 지휘 오위영  
레위 성가단 : 지휘 강정엽  
미주여성코랄 : 지휘 오성애

■ **일시:** 2024년 9월 29일(주일) 오후 5시 30분  
■ **장소:** 나성 한미교회 (626)444-0058 2727 Duffee AV, EL monte CA 91732  
■ **문의:** (714)553-9234, (909)319-2158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회장 서경원 장로

**부목사 청빙**

시카고 교외에 위치한 헤브론교회(www.hebron.org)에서 Full-time 부목사를 모시려고 합니다.

- 1. 사역영역**  
장년사역 목회자 1명(심방, 설교, 교육)
- 2. 자격요건**
  - 1)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교단에 속해 있거나 교단 가입이 가능한 분
  - 2) 정규신학대학원 졸업자(목회학석사)
  - 3) 미국거주 및 사역이 법적으로 가능한 목회자(취업비자 제공 가능)
- 3. 제출서류**
  - 1) 이력서 1부 (사진 첨부)
  - 2) 자기소개서 1부 (가족소개, 성장배경, 신앙고백 및 소명, 은사 및 관심분야)
  - 3) 최근 1년 이내 설교 영상(1편): 유튜브 링크
  - 4) 추천서 : 2부(이전교회 담임목사 포함, 추천인의 이름과 연락처 포함)
  - 5) 신학대학원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목사 안수증명서 각 사본 1부
  - 6) 미국거주 및 합법적 사역을 입증하는 서류
- 4. 제출서류 마감일: 2024년 10월 27일**(또는 적임자를 모실 경우 마감)
  - 1) 모든 서류는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Taehankim@hebron.org)
  - 2) 문의: 김태한 목사 (630-935-7552, Taehan.kim@my.wheaton.edu)
  - 3) 1차 서류 심사 후 면접 대상자들에게는 개별 통보해 드립니다.

**헤브론교회**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당신의 소중한 눈을 건강하게 지켜드립니다!



# KISEIDO EYE NOON EY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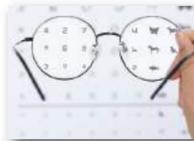
믿음의 이름, 귀생당에서 만든 이시대 최고의 눈 건강 영양제!

좁아진 시야, 흐려진 시야로 고생하는 당신을 위한 최고의 눈 영양제!

[귀생당 아이 눈 아이]는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청정 열매인 마퀴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델피니딘, 루테인, 지아잔틴 성분을 함께 구성하여 현대인의 눈 건강의 최적화와 눈 건강에 더욱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롭게 나온 눈 영양제입니다.



망막색소 재활성화



시력기능 향상



야간시력 개선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예방

하루에 2캡슐! 아이 눈 아이로 더 밝은 세상을 만나세요!

## 아이 눈 아이의 효능 효과

- 눈 기능 활성화, 눈 건강유지 및 보호
- 장시간 컴퓨터, 스마트 폰, TV, 등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눈의 피로 개선
- 백내장, 녹내장, 근시 및 AMD(황반변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 활성산소 완화
- 혈류 개선, 미세혈관 순환증가
- 심혈관, 뇌혈관 순환 도움
- 알츠하이머, 치매, 집중력, 인지능력 향상
- 장내 효소 증가
- 소화기능 개선
- 빈혈, 간 기능 개선
- 면역체계 향상

주요성분

안토시아닌,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델피니딘, 프로안토시아닌, 피페린, 빌베리



213.384.3333

www.kiseidousa.com

These statements have not evaluated by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d disease.